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나간 것을 좇아가지 말라.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6월 22일)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코로나 잊은 연꽃 삼매경 변이코로나 확산이 거셌던 7월 12일, 서울 조계사에서 활짝 핀 연꽃을 스마트폰에 담고 있는 스님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코로나와 긴 장마비 사이에서도 피어난 연꽃처럼, 오탁악세 속에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선학원 문제 해법을”…비구니 스님 첫 결집

전국비구니회 7월 11일 긴급회의 개최

철우 스님 · 정인진 변호사 발제
총림선원 · 청화사 창건주 스님들
직접 참석해 각 피해상황 공유도
조계종 · 선학원에 호소문 전달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고착화된 조계종과 선학원간 갈등으로 고통받는 선학원 소속 비구니들을 위해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이 해법모색에 나섰다. 특히 스님들은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모아조계종 · 선학원 양자 모두에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하는 등 본격행보에 착수해 주목된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7월 11일 ‘선학원 소속 비구니사찰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긴급회의 소집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총림선원과 청화사 문제와 관련, 당사자인 창건주 스님들이 직접 참석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발언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총림선원은 선학원이 창건주 · 분원장 모르게 사찰 토지를 진주시에 매각한 사례이고, 청화사는 감사 2회 불응으로 사고사찰 지정 및 재산관리인 파견통보를 받은 사례로 주목된다.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은 “선학원이 총림사 무허가 전각 4동이 인접하고 있는 토지를 몰래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년 6개월 동안 팔순의 은사 스님도, 저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탁명 스님은 현재 진주시를 상대로 총림선원 부지를 지키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진행 중이며, 선학원 측은 유치원 건과 관련해 스님과 은사 스님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상태다.

탁명 스님은 “선학원 분원 창건주로서 나름대로 재단에 잘 협조하면서 살아왔기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힘든 싸움을 시작했지만, 부처님과 호법신장님, 여기 모이신 스님들께서 우리 총림선원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청화사 창건주 심원 스님은 “총림선원과 비슷한 상황 같지만, 저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지적해 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청화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은 깊지만, 잘못된 행정, 잘못된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고 밝혔다. 10여 분간 청화사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발언한 스님은 “전국비구니회가 개최한 오늘의 긴급회의가 더 많은 분들이 선학원 소속 분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국비구니회 경북제1지회 지회장이자 조계종 종회의원 철우 스님의 ‘선학원 소속 사찰 비구니스님의 현실’ 주제 발제와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갈등해법을 위한 제언’ 발표도 진행됐다. 두 발제를 통해 참석대중들은 선학원 문제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해법모색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조계종에 대해서는 선학원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 해제를, 선학원에는 △분원 동의없는 토지 매각 중단 △사고사찰 지정 중단 △분원장 임명시 조계종에 제적원 제출요구 중단 등 3개항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과 선학원 등에 전달할 호소문도 채택했다. 호소문은 그동안 고착화된 조계종과 선학원간 갈등구도를 넘어, 순수하게 조계종 승적을 가진 선학원 소속 분원 스님들의 고충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전국비구니회는 호소문에서 “과거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불교정화운동이 촉발되고 비구 · 대처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한국불교 혼란기에, 수많은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이 삼보정재를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선학원에 사찰을 등록했음을 알고 있다”며 “현재 선학원의 모습에 그러한 과거의 믿음은 사라졌고 분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삼보정재를 매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원은 사고사찰로 지정하는 등 그 횡포가 날로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국비구니회는 현 상황에 대해 “수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선학원과 조계종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선학원을 선택하면 정체성에 다름없는 조계종 승적을 잃고, 조계종을 선택하면 선학원에 등록된 사찰을 잃게 되는 이해 못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조계종과 선학원이 고착화된 갈등 속에서 서로의 명분과 이익만을 계산하는 동안, 수많은 스님들의 불안과 냉담은 점점 더 크기를 키워 마침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결과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늦은 후회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선학원 소속 스님들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모두가 힘을 합쳐 지켜내자”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청소년 출가자, ‘군승’ 의무복무 중앙종회 부의…통과될 수 있나

출가특위, 7월 14일 회의서 ‘특별법 개정안’ 성안

사상 초유의 군승 파송 미달사태 해결을 위한 조계종 차원의 대안 마련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를 지닌 청소년 출가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일반 사병 대신 군종장교로 단기 복무토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병역 이행 선택권을 침해하는 강제성을 비롯해 논란 요소도 있어 향후 중앙종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특위(위원장 정범)는 7월 14일 종회 소회의실에서 출가수행자장려정책마련을 위한 제8차 회의를 열고 제225회 임시종회에 ‘청소년출가 · 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하 출가특별법개정안)을 성안, 19일 개원하는 임시회에 부의키로 결의했다.

출가특위가 이번에 성안한 ‘출가특별법개정안’은 군승 파송 자원 부족사태에 대해 소년출가자 및 군미필인 청년출가자가 종립대학을 졸업하면 군승으로 의무복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이들이 종립대학 재학 중 종단에서 매월 수행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년출가자는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출가자를 말하며, 청년출가자는 19세 이상에서 30세 이하의 출가자를 말한다. 이날 출가특위 회의에서 교육원 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매년 편차는 있지만 적게는 2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군승 수급을 청소년 출가자 의무복무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성안에 앞서 특위에서 일부 스님들이 의무복무에 대해 출가자에게도 병역 이행 선택권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또 종립대학 기피나 출가자 감소 우려도 제기됐다.

군미필 스님에게 종단 지원
군종장교 복무로 병역 이행
年 2~10명 가량 수급 기대
강제성 많아 통과 여부 주목

하지만, 출가자로서 장병 복무 대비 장교 복무의 장점이 많다는 군종장교 출신 스님들의 의견과 병역 의무 이행 자체가 출가 여부와 관계없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 점에서 대다수 특위 의원 스님들이 성안에 동의했다.

특히 의무복무 외에는 종단 차원의 뾰족한 단기 군승 수급대안이 없다는 점도 이번 법안 성안을 이끌었다.

현재 군승 파송 문제는 장기적으로 출가자 감소를 해결하고 단기적으로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가톨릭이 시행하는 교구의무할당제는 중앙집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조계종 입장에서 본사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과 군법사 제도 운영은 2009년 종헌 독신 예외조항 삭제 및 군승 정체성 강화 이후 장점 증대와 제도 정립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도 높다.

중앙종회의원 법원 스님은 “스님 신분이라면 병사보다, 이들을 이끄는 위치에서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출가자로서는 전법과 수행이 사명이기에 군에서 전법을 하자는 의미”라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 위한 작은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가특위 위원장 정범 스님은 “현재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청년층 이하 인구가 급격히 감소, 포교에 난관이 많다. 하지만 군장병은 매주 정기적 종교활동이 보장되어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종단의 군승 파견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획] 5면 군승 파송 절벽 다가온다
⑤ 군승 파송 제도 개선, 무엇이 필요한가?

백만원력 결집불사
세종 광제사 대웅보전 낙성법회 및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

일시 | 불기2566(2022)년 8월 9일(화), 오후 2시
장소 | 광제사(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모롱지로 94)
문의 | 총무원 총무부 02-2011-1723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의 미래, 세종 광제사의
공덕주가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불사 및 기도동참
부처님 조성 불사
복장불사
천일기도
기념식수

후원계좌 농협 301-0294-9457-71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광제사)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광제사
044-850-3190



출범 8년 '태고종' 창종…두 종단 체제

통합종단 60년, 과거서 현재를 보다

① 성립 배경
② 출범 과정
③ 출범 이후
④ 주요 인물
⑤ 평가와 과제

1962년 4월 11일 공식 출범
표면은 비구대처 갈등 봉합
내부적으로 혼란·진통 여전
대처측 소송에도 최종 패소
정부, 1970년 '태고종' 인정
조계종·태고종 양종 체제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969년 개최된 '전국불교도대회'에서 대처측은 통합종단 백지화와 분리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출처=한국불교100년사

1962년 4월 11일, 우여곡절 끝에 통합종단이 출범했다. 표면적으로는 오랜 비구대처 갈등의 봉합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속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 바로 비구·대처승간 불균형이다. 정부의 개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양자간 통합은 비구승측에 편중된 구도로 일궈졌고, 대처승 측의 반발과 이로 인한 분열은 예견된 바였다.

통합종단의 내부분열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8월 25일 처음으로 개원한 종회였다. 초대의장에는 벽안 스님이, 부의장에 경산 스님과 서각 스님이 선출됐지만, 대처승 측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종회 불참을 선언했다.

통합종단 출범을 위한 재건비상종회를 해체하고 처음으로 구성된 초대종회는 시작부터 양측 구성에 대한 논란으로 삐걱댔다. 초대종회의 의원 50명 중 비구측이 32명, 대처측이 18인이었기 때문이다. 대처승측은 양측 동일비율로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정부측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자는 비구측의 안을 수용하는 등 사실상 비구측에 무게중심을 둠으로써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반발한 대처측은 통합종단을 해체하고 모든 합의를 무효로 돌릴 것을 요구하며 종회 불참을 선포했다. 이어 서울 서대문에 조계종 명의의 총무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등 사실상의 독자행보에 나섰다. 특히 대처승측은 10월경 서울민사지법에 '종헌 결의 및 종정추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통합종단 출범을 무효로 돌리기 위한 법적 대응에도 착수했다.

이 소송은 1965년 6월 11일 원심에서 대처측이 승소했고, 재판부가 같은 해 9월 7일 비구측의 항소로 이어진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비구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초 양측은 통합종단 출범의 전제로 정부의 중재 하에, 전국 각 사찰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소송을 중단키로 합의한 바 있었으나 이 역시 통합종단 자체가 진통을 겪으면서 상당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통합종단 주류였던 비구측은 양측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처측 인사가 소송을 취하하고 종헌을 받아들이는 경우, 본사 및 사찰의 운영권을 제공하고 종회의원 자격을 할애하는 등 회유책도 활용했다. 이런 가운데 1965년 10월 23일 대법원이 대처측 상고에도 최종적으로 비구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실상 통합종단 내 양자균형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막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이후 통합종단은 비구측 세력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대처측이 합류하면서 또다른 변화를 맞았다. 1967년 2월경 비구·대처 양측은 간담회를 열고 통합종단 조계종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처측의 경우, 통합종단에 합류한 일부 세력과 양자간 불균형을 비판하는 강경세력으로 이분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통합종단 합류세력은 대처측 대표로서 비구측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했지만, 박대륜 스님을 주축으로 한 강경세력은 이들을 비판하면서 분종을 준비해 나갔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통합종단의 완성이었지만, 내부적인 갈등은 여전히 잔존해 있었던 셈이다. 중앙에서는 통합종단 조계종이 안착했지만, 일부 주요 사찰에서는 여전히 양자간 폭력사태가 지속됐으며 종단 내 운영 또한 안정적이지 못했다.

결국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통합종단은 1969년 8월 경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했던 前종정 청담 스님의 탈종선언으로 그 내부적 한계가 표출되는 계기를 맞는다. 청담 스님의 탈퇴선언은 종단의 내부적 혼란을 깊이 우려해 온 결과였다. 그해 7월 종단 유신재건안을 종회에 제출하지만, 채택되지 않자 결단을 내린 셈이다. 청담 스님은 장로원장으로 복귀한데 이어, 이듬해인 1970년 종단 혼란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무원장 소임을 맡는다.

한편 통합종단에 포함되길 거부한 대처측 주요세력들은 1969년 3월 종권수호 전국불교도대회 및 제8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통합종단 백지화와 대처측의 분리를 공식선언했다. 이어 1970년 1월 '한국불교태고종'을 창종을 선포한데 이어, 4월 16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박대륜 스님을 종정으로 추대하고 그해 5월 불교재산관리법에 정식 등록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통합종단 조계종 출범 8년만에 정부가 태고종을 정식종단으로 인정하면서, 한국불교는 조계종과 태고종 양대종단 체제로 완전히 안착됐다.

조계종·태고종 선암사 소유권소송, 대법원 갈까

항소심서 태고종 승소…조계종 상고 여부 관건

광주고등법원, 7월 7일 판결
조계종선암사 실체 부정취지
원심과 반대로 등기행위자엔
말소이행 결정…법리 논란도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태고종간 수년째 지속된 법적공방의 핵심판결로 주목됐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말소소송'의 항소심 결과, 태고종이 사실상 승소함에 따라 조계종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7월 7일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선암사와 윤선웅(당시 조계종선암사 주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조계종선암사의 항고를 각하하고 윤선웅씨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결정했다.(本紙 1395호 참조)

이번 소송은 원고인 태고종선암사가 조계종선암사(주위적 피고)와 당시 주지 윤선웅(예비적 피고)씨 두축으로 소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재판부가 원심 판결과 반대로 조계종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하면서, 당시 등기행위자였던 윤선웅씨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법리적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실질적인 판단을 피함으로서 법리적 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조계종측 법률대리인은 "법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심판범위를 밝힌 취지에 근거해 상고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조계종 선암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상고심에 참여하는 방안 등 여러 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은 7월 22일까지이며, 7월 20일에는 '선암사 차체험관 철거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송지희 기자

관음종 9세 종정 홍파 스님 추대법회

7월 14일 서울 묘각사서
법명 총무원장 취임식도
홍파스님 "미묘법 펴겠다"


관음종 제9세 종정 홍파 스님의 추대법회가 7월 14일 묘각사에서 봉행됐다.

대한불교관음종 제 9세 종정 추대 법회 및 총무원장 취임식이 7월 14일 오후 2시 관음종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묘각사에서 봉행됐다.

관음종 부원장 도각 스님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는 원로원장 법륜 스님의 종정 추대사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법륜 스님은 "영산 홍파 대종사는 관음종 총무원장 소임을 오랜 기간 수행하면서 종단을 반석위에 올려놓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최장수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종단간의 화합에 공헌했으며, 한국불교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하신 분"이라며 "종정 예하의 덕화로 이 시대 갈등과 대립으로 갈라진 반목의 물줄기를 한 곳에 흐르게 하고 역사속에 한국불교의 새지평을 여는 천인사로 시공에 무애하시길 기원드린다"고 추대사에 가름했다.

이어 종정에 취임한 홍파 대종사는 "시절 인연이 부득하여 산승이 오늘 법좌에 오르게 되었다. 불보살님과 은법사이신 태허조사님, 그리고 여러 대중은혜에 감사하는 소회를 표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 하겠다"고 말머리를 풀었다. 이어 홍파 종정 스님은 "천태 지의 스님, 고려 제관 스님, 왕자 의천 스님, 경운 원기 스님, 그리고 태허 조사님, 제가 반드시 미묘한 법을 더욱 펴겠다"고 결의에 찬 수락 법어를 내렸다.

이날 관음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법명 스님도 취임사를 통해 "종정예하께서 반석을 다져놓은 관음종단의 위상에 흠이 안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불교의 신앙적 가치가 드리워져서 성취중생과 엄정 불토를 실현하는데 소홀함 없이 심혈을 기울여 종단과 불교 중흥에 이바지 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이원욱 국회정각회장 의원, 최재형 종로구 국회의원, 최윤섭 관음종 중앙신도회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본지 현대불교신문 구태서 사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관음종 종정추대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추대위원회를 소집하고 홍파 스님을 종정으로 추대했다. 관음종 종정은 2010년 죽산 스님 입적 이후 12년간 공석이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계종 종회, 총림·원로회 변화 쟁점

7월 19일 개회 예정 종회서
총림 방장자격 등 논의 예정

출가장려정책 및 총림 자격 확대 등 종헌·종법개정안을 다룰 조계종 중앙종회 제225회 임시회가 7월 19일 개원한다. 이번 종회에서는 총림 뿐 아니라 원로의장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종헌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회는 제17대 중앙종회 마지막 회기인 동시에, 조계종 총림의 적지않은 변화를 예고하는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호산 스님이 대표발의할 종헌개정안은 총림 구성요건을 기존 4개에서 3개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종헌에 따르면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 등 4대 수행기관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출가자수가 급감하는 상황임을 염두해, 이를 '3개 이상 수행기관'으로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원로의장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종헌개정안, 원로회 권한에 '종단 중요종책 심의권'을 신설하고 '2급 이상 법계심의권'을 '대종사 법계'로 변경하는 종헌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6일 원로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다.

총림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종헌개정안의 연동법안으로 총림법 개정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림법 개정안은 종헌 제103조 개정안을 준용하는 한편, 방장 자격요건을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하고 전문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을 추가하는 안도 포함돼 주목된다.

송지희 기자

10·27법난 추념

전국승려문예공모전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신군부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라는 미명하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전국의 사찰을 급습하여 스님 및 불교계 인사들과 민간인 관계자들을 강제연행하고 고문과 폭행으로 인권을 유린하였고 신성한 법당을 짓밟는 등 불교계를 강제로 탄압을 하였습니다. 명분은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합니다.

전국승려문예공모전의 취지

10·27법난이 발발한지 42년이 지났지만 아픈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제강점기는 끝났지만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듯이, 10·27법난 역시 그 고통과 슬픔을 겪은 스님들이 생존하고 있는 이상 그저 옛날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처절하고 아픈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출가자들의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문예작품을 통해 10·27법난피해에 대한 치유와 종교적 평화정신을 널리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주제
• 10.27법난의 진실, 역사적 상처의 치유, 화해 상생의 정신 확산 등
• 종교적 평화정신의 고취

공모일정 : 5월 25일 ~ 8월 19일
공모대상 : 스님(학인스님 포함)
공모부문 : 시(3편 이내) / 산문 (1편 이상)
제출규격 : 시 산문 모두 '한글' 파일작성(제목 15p, 본문 11p)
제 출 량 : 시 자율 / 산문 A4 2페이지 이상
시상자 발표 : 9월 초(예정)
시 상 식 : 10.27법난 추념법회 중 진행예정
참고자료 : YouTube 10.27법난
시상내역(16편 / 15,000,000원 상금)

구분	시 상 수	부 상	총상금
대 상	2편(부문별 각 1편)	상장 및 상금 300만원	600만원
우수상	4편(부문별 각 2편)	상장 및 상금 100만원	400만원
장려상	10편(부문별 각 5편)	상장 및 상금 50만원	500만원

접수방법
접 수 처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02-730-4488)
접수방법 : • 홈페이지 접수 : 응모하기 메뉴에서 작품 파일 등록(www.ibulgyo.com)
• 우편 :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2층 10.27법난전국승려문예공모전 담당자 앞

주의사항
- 홈페이지 접수 시 시·산문은 한글파일로 첨부할 것
- 기존에 출품되지 않은 신작이어야 하며 순수한 창작물에 한합니다.
-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응모작품이 순수한 창작물이 아닌 모방, 표절, 대리 작성된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자의 판권 및 저작권 등 제반 권리는 주최측에 귀속됩니다.
- 참가비 없음.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주관 불교신문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3회 전통문화사진공모전 김용대 作 '규봉암의 봄'

불교 미래 청사진 바꾸는 대작불사 순항

백만원력 3년, 어떤 성과 일궜나

上 한국불교 대규모 목적불사 토대 구축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36대 집행부 핵심 사업
2019년 첫발…대작 불사 포함
불자들 적극 보시 원력 구심점
공감대 형성으로 3년만에 성과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불자 100만 명이 하루 100원씩 보시하는 모연 캠페인이 토대가 됐다.

한국불교 중흥과 백년대계를 발원하며 조계종 제36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인도 부다가야에 건립된 첫 한국 전통사찰 분황사가 5월 준공식을 열었고 8월에는 신도시 포교중심도량이 될 세종시 광제사가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종단의 숙원과 제였던 대규모 불사들이 수많은 불자들의 십시일반 동참에 힘입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불자 100만 명이 하루 100원씩 보시하는 모연 캠페인이 토대가 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백만원력결집위원회 출범 후 3년 간 모금액은 7월 현재 138억원으로 매달 정기후원자는 2300여 명, 누적 동참자는 7만 5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순수 모연을 통해 단기간 조성된 기금으로는 유례없는 수치다.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지난 3년 성과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조계종 제36대 집행부의 핵심종책사업으로 2019년 첫발을 디딘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종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목적불사가 대거 포함됐다.

10대 사업은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 △불교병원·요양원 건립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 마련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세우기 예경사업 △10·27법난기념관 건립 △위례신도시 종교시설 건립 △나눔기금 조성 등이다.

이 중 열암곡 마애불 바로세우기 등 2건을 제외하면 모두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수적인 대작불사다. 동시에 오랜세월 종단 안팎에서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한정적인 종단 예산에서는 섣불리 추진할 수 없었던 숙원과제들이기도 하다. 백만원력결집불사 출범이 종단불사 체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출범 3년 만에 불사재정 안정화를 위한 확고한 토대로 안착했다.

신도시 포교를 위한 불사도 기대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다. 8월 9일 낙성법회를 앞둔 세종시 광제사가 대표적이다. 광제사는 종단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신도시 포교불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 광제사 불사는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신도시 포교거점 사업을 종단 핵심종책 과제로 선정하면서 출발했다. 산중에 머물던 불교를 대중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력이었다. 2011년 종단 차원의 신도시 포교 계획을 구체화했고 이후 부지 매입에 박차를 가했다. 부지 매입 당시에는 모든 것이 종단 부담이었으나, 백만원력결집불사 출범을 계기로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 광제사와 더불어 준공된 전통문화체험관은 한국불교역사를 계승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 기대가 크다.

불교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보존관리 및 수리를 담당할 전문 연구시설도, 첫 계획을 수립한지 9년여 만인 지난 4월 26일 첫 삽을 떴다. 양평 불교문화재연구시설 건립불사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된 전통문화재 보존과 복원, 전승을 담당할 중요한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재 시설의 필요성은 이미 '1994 조계종 종단개혁' 직후부터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30년만의 결실인 셈이다.

오랜 세월 진전이 없었던 여러 불사들이 본격화된 계기 또한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저력이다. 불자들이 적극적인 보시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한편, 한국불교 숙원 과제에 대해 인식하고 원력을 모아내는 구심점이 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불자들은 백만원력결집불사를 통해 스님들의 노후복지 참상을 알게 되면서 불교요양병원이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 또 조계종이 국가지정·비지정 문화재 상당수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교문화재 보존·수리 전문기관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조계종 측은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없었다면 코로나19 시국에 수많은 대규모 불사들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불사는 규모가 크던 작던, 종단 기채승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추후 이를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생한다. 백만원력결집불사가 시작된 후 동참자들이 증가하며 매월 쌓이는 금액도 늘어나 기채승인 부담이 줄면서 불사 기반이 탄탄해졌다는 평가다.

백년대계본부 측은 "백만원력결집불사는 길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고 시작한 불사"라며 "한국불교 미래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불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7대 종교 지도자들, 사형제 폐지 촉구

7월 14일, 헌법재판소 앞서 입장문
헌재에 "사형제 위헌결정 내릴 것"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을 선언합니다. 죽음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7대 종교 대표들이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사형폐지 의견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 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와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7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며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후로 25년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로 분류한 지 오래다. 임은호 기자

"비구니 스님들 고충, 반드시 해결돼야"

전국비구니회, 긴급회의서 결의
본각스님 "원력·결의 모아 변화"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7월 11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3층 만불전에서 개최한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 비구니사찰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는 선학원 문제에 대한 전국 비구니스님들의 지혜와 결의를 모으는 법석이었다.

선학원 문제로 전국비구니회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국 19개 지부 가운데 제주지회를 제외한 18개 지회에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회장 본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긴급회의가 소집된 이유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긴급회의의 시작은 원로의원 자민 스님의 전화 한통, 선학원 소속 스님들의 고통이 깊으니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에서 출발했다.

소임자들과 전국 120여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가 먼저 소집됐다. 비대면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80% 이상 스님들이 "일단 해보자" "긴급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지혜를 나누자"는 의견을 모아냈다. 본각 스님은 "오늘 긴급회의는 구체적인 사안과 현실을 공유하고 우리 비구니들이 지혜와 원력을 모아,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통해 재단법인 선학원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한 철우 스님은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선학원 이사회가 과연 선학원에 등록한 스님들을 재단의 구성원으로 존중해 주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찰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으니, 창건주·분원장은 재산에 종속되오는 '관리인'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에서는 고통받는 선학원 분원 비구니들과 함께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이미 천명했다"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대중이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인진 변호사는 "법적으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면 인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가야 한다. 이기는 싸움만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7월 12일 조계종 총무원과 재단법인 선학원을 방문해 전국비구니회 결의가 담긴 호소문을 전달한데 이어, 대전 청화사에서 '제22차 수행결사'를 통해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다졌다. 송지희 기자

사노위, 발달장애인 참사 49재…정부 지원 촉구

7월 12일, 삼각지역 내 분향소서
정부에 "국가 책임 다할 것" 요청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7월 1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 역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49재를 봉행하고 고인이 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사진 오른쪽〉

사노위 주관으로 마련된 49재는 사노위원 고금 스님이 법고를 두드리며 시작됐다. 100여명 의 동참자들은 사노위 스님들이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염불을 진행하는 동안 발달장애인 부모 등 6명의 위패 앞에 국화꽃을 헌화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종교를 넘어 49재라는 공동체 의례로서 시민단체와 종교계 연대 속에서 49일 동안 애도와 추모,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라는 목소리를 내 왔다"면서 "49재 원만 회향을 계기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지원 법 등이 담긴 권리보장 개정안이 보완돼, 공적사회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9재 후, 삼각지역에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으로 행진한 동참자들은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가족 열위영가'가 적힌 위패를 태우며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어 원불교·천도교·천주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연대한 '5대 종단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지금 당장 만들어라!'는 제하의 입장문에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에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새롭게 리모델링된 동국대 산하 은석초등학교 연화법당


새로 조성된 동대부여고 정각원 법당. 새로운 닫집을 제작하고 아트월을 설치했다.


조성 예정인 동대부여중 상 · 상법당의 미디어아트 '진여법계'의 한 장면.

"법당을 놀이터로"…달라진 東大 초·중·고교 법당

동국대 건학위 '학교 법당 리모델링 사업' 본궤도

4월 은석초교 법당 시작으로

동대부여고 법당도 리뉴얼해

미디어 아트 활용 법당 예정

학생 친화적 법당 호응 높아

他종립학교에서 견학 오기도

"어린이 청소년 포교 善사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립 동국대 부속 초 · 중 · 고교 법당이 달라지고 있다. 전통 방식을 고수했던 이전 법당과 달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법당 인테리어를 개선하며 문턱을 낮췄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학생 친화적 법당으로 개선을"

동국대 부속 초 · 중 · 고교를 대상으로 한 '산하 학교 법당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이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이 미래불자 양성을 위한 포교 공간인 산하학교 법당을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첫 결과물은 불교 유일 종립초등학교인 은석초등학교(교장 양형진)의 법당이었다. 은석초등학교는 지난 4월 29일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한 '연화법당'을 공개했다. 빨간 분채를 사용한 탱화나 우락부락한 사천왕상 대신 귀여운 천진불상과 아기자기한 후불탱화로 법당이 장엄돼 어린이들이 다가가기 쉽게 했다.

실제, 리뉴얼된 은석초등학교의 '연화법당'은 학교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양형진 은석초등학교장은 "달라진 연화법당은 학교의 새로운 포토존 명소가 됐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도도 높다"고 밝혔다. 법당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점이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다. 양형진 교장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법당에서 공기놀이를 하며 법당을 편안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도 거부감 없이 법당에서 바자회, 연수, 공개수업 등의 행사를 소화한다"고 설명했다.

"공주님들의 놀이 공간으로"

은석초등학교에 이은 '산하 학교 법당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동국대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교장 박현숙, 이하 동대부여고)이다. 동대부여고는 7월 11일 교내 정각원에서 '중수불사 회향 및 개원식'을 봉행했다.

개선 전 동대부여고 정각원 법당은 전통 방식을 재현하기 위해 닫집, 공포 등이 설치됐었다. 특히 닫집은 필요 이상으로 커 법당이 비좁은 느낌이 들었다. 이에 동대부여고는 닫집과 공포를 철거하고 불단에 맞는 새로운 닫집을 제작했다. 불단 옆에는 아트월을 설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을 붙일 수 있게 했다. 내부를 새로 칠하고 조명도 환하게 바꿔 학생들이 편안하게 법당에 올 수 있도록 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학생들이 법당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며 "법당이 우리 공주님들의 놀이터가 되고, 교실이 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기원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동대부여고는 학내 법당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쉬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현숙 동대부여고 교장은 "정각원 법당이 여고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개선됐다"며 "앞으로 다목적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학생들이 불교와 부처님에게 스며들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학주 교법사는 "부처님 쪽으로 발만 안 뻗으면 법당에 누워서 자도 된다"면서 "최소한의 예절만 지킨다면 법당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 역시 리뉴얼된 법당에 기대감이 컸다. 정은비 파라미타 회장(2학년)은 "기존 법당은 어둡고 비좁은 느낌이 있었는데 새로운 법당은 조명도 밝아지고 넓어져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첨단 미디어 아트 법당 조성도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산하 학교 법당 프로젝트'에는 최첨단 기술도 도입된다. 세 번째의 결과물이 될 동국대부속여자중학교(교장 전정란, 이하 동대부여중)의 '상 · 상법당'은 최신 미디어아트가 후불탱화로 장엄될 예정이다.

'상 · 상법당'은 기존 불상 뒤에 자리하고 있던 전통 형식의 탱화 대신 고해상도 LED 스크린을 설치해 미디어 영상작품들이 불상, 그리고 적절한 조명과 어우러져 상영되도록 제작된다. 이를 통해 △전통 · 미래 △종교(사상) · 기술(혁신) △정적임 · 동적임 등 상반되는 개념들을 융합적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첫 미디어 작품 '진여법계'의 제작을 맡은 서동주 작가는 "불상 뒤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불교적 시공간의 이미지를 감상함으로써 학생들이 상상력을 확장하고 가상이 인도하는 명상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얻고,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법당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학교 법당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첫 결과물인 은석초등학교 연화법당을 다른 종립학교에서 견학을 오는 등 벤치마킹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다.

양형진 교장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당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산하 학교 법당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현 세대에 맞는 법당을 조성함으로서 불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줬다. 향후 사찰과 학교에 조성될 어린이 청소년 법당의 모범 사례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추본, 日 간토 학살 진상 규명 힘 합친다

7월 12일, 100주기 추진위 발족

"특별법 제정해 피해자 명예회복"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벌어진 조선인 학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100주기를 앞두고 국내외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합심,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7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여 학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에는 불교계를 대표해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가 동참했다.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는 7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불교 대표로는 민추본이 참석했다.

간토 학살은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규모 7.9의 간토대지진이 일본 수도권 일대를 강타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재일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 사회주의자 등이 학살된 사건이다.

〈독립신문〉에 따르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한다' 등의 유언비어가 퍼져 자경단, 경찰, 군인에 의해 6000여 명이 살해됐다.

추진위는 2023년 100주기를 앞두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역사적 기억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먼저 특별법 제정을 추진, 간토 대학살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에 나선다. 또 간토 제노사이드 국제학술회의, 피해자 추도식은 물론 간토 역사 상설전시와 순회 전시회도 기획하고 있다.

민추본 사무총장 범종 스님은 "불교계를 대표해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 조선인 학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사경 통해 부처님 법음 가까이하길"

파라미타, 사경 공모 시상식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지현, 조계사 주지)는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실에서 제25회 청소년 사경공모 우수작 시상식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시상식에는 파라미타 총재 범해 스님(포교원장)이 직접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시상식에는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박예진(광동고) 학생을 비롯해 특별상 수상자인 김민(은석초), 노을(동대부여고), 최예섭(동대부여중) 학생이 참여했다. 또 최우수상 문서현(약사사 어린이청소년 법회), 우수상 김동현(약사사 어린이청소년 법회) 등도 참여해 상을 받았다.



파라미타 총재 범해 스님은 "청소년 사경공모전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사경을 통해 부처님 법음을 가까이 하는 계기다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며 "학생들이 부처님 말씀 배우고 신행활동을 열심히 하길 바란다. 좋은 인재로 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획] 군승 파송 절벽 다가온다

⑤ 군승 파송 제도 개선, 무엇이 필요한가?

군승 파송 자원 수급 문제는 출가자 감소라는 불교계의 현실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적으로 출가자 확보에 대한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단기적으로 파송 자원 수급방안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군포교 현장과 종단 안팎의 제언을 싣고자 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승사관학교 등 건립 추진 필요

조계종 종회의원 정범 스님
〈군승 25기〉

군승은 그동안 독신비구로 정체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1969년 저보다 먼저 군법사가 된 1기부터 25기(1995년)까지 종단은 237명을 파송했습니다. 하지만 종단으로 복귀한 군승은 38명뿐입니다. 제 뒤로 군승 26기부터 53기(2021년)까지 239명이 역시 파송됐습니다. 이 중 134명이 스님으로 종단에 복귀하였습니다. 요즘은 파송 스님 중 90% 이상이 현역으로 있거나 종단으로 복귀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분명히 종단 안팎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비역 군승 출신 종회의원을 보면 수십 년간 한두 명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10여 명에 달합니다. 교구본사에서는 7직 중 2~3명이 군승 출신입니다. 군승 정체성 강화로 군포교를 경험한 이들이 점점 늘기에 자연스럽게 군포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승 수급의 핵심인 출가자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승 파송 요구인원 중 7명밖에 파송 못한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종단은 그동안 최대 숙원이었던 중앙승가대 이전 불사 이후 논산 육군훈련소 불사 등 원력과 신심을 바탕으로 불사를 이어왔습니다.

군승 수급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청년 스님들이나 스님이 되려는 이들이 군종장교, 즉 군승으로 병역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종단이 국방부와 협의를 하는 등 수급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역자 관리부터 진급 등 보다 체계화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종교인 감소는 불교계만의 일이 아니기에 함께 정부와 협의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자원을 발굴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단이 보유한 신촌 봉원사에 군승사관학교를 건립해 수도권 군승 지원자 스님들 학사로 활용토록 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종단은 필요한 목적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운영령 등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군불교 핵심인 군승에 대한 종단 안팎의 인식을 높이고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대안마련에 나섰으면 합니다.



군승 의무복무 제도화 단기적 해법될 것

조계종 종회의원 법원 스님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

군불교를 논할 때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포교의 황금어장' '한국불교의 미래' 입니다. 이는 불교발전과 더 나아가 불교 존립에 있어 군불교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현장 한가운데 있는 군승들은 많은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소중한 이들입니다.

군승 파송의 미달사태는 출가자 감소가 직접적 원인이겠지만 종단의 군승제도와 자원관리 소홀이 더해져 더욱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적은 출가자에도 군미필자들은 군승으로 복무케 하고, 군필자 중 자격이 되는 이를 임관토록 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소년, 청년출가제도를 보완하면 군승 수급 확대를 위한 '군승연계출가' 가 가능합니다. 미필자 스님들의 군승 의무복무는 제도화 되어야 하고, 이것이 군불교 발전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현재 복무중인 군승 자원을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관리, 장기복무를 원하는 이들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종단은 군승 파송의 역할만 하고, 파송된 군승의 인사관리는 군이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위관장교들의 진급, 연장, 장기복무 등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항아리에 물이 새고 있으면 물을 아무리 길어다 넣어도 채워 넣을 수 없는 이치죠.

군승 파송 인원은 전역 인원에 비례하기에 결국 전역과 파송 관리를 복합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종단과 군종특별교구가 꼭 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군승' 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불자들 중에도 출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비출가제도 등 종단 출가제도의 폭을 넓히고, 군승사관학교 설립, 장기복무 우선선발 등 요원제도와의 차별화를 통해 종립대학 학생들에게 '군승' 을 적극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승·군법사 분리 이원화 제도 모색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군포교는 군장병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기를 연계시키는 핵심 포교활동 영역입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20대 초반의 남자, 그리고 하사관과 장교들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군승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최근 벌어진 군승 파송 미달은 출가자 감소로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톨릭과 같이 의무할당, 의무복무하게 하는 방법은 출가자 급감 속에서 결국 대안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반학생들이 군승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종단 내부적으로는 군승 자격으로 제정된 독신을 폐지하고, 대신 군승과 군법사, 즉 군종장교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일반학생의 경우 군종사관후보생이 되면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 입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을 이수케 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리 운영시 중요한 점은 관리의 고도화입니다. 장기 복무 및 승진 등에서 이점이 있도록 힘써야 하며, 군포교 전력이 일정기간을 두고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합니다.

군승 전역자와 입대자 비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규모화된 인력 배치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군승 파송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군포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포교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일 것입니다. 스님들의 병역 이수를 군승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자질과 역량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군포교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승에 대한 독특한 환경을 이해하고, 제도의 완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종사관후보생제 되살려 최대 활용을

이정우 前 군승법사
〈제38대 군종병과장〉

인구절벽으로 출가자 감소가 위험수위에 달한 상황에서 군승파송 미달사태는 명약관화하였습니다.

현역 군승들은 군정책에 따라 십 수 년 전부터 불교계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하였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묵과한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출가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군승 수급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은 출가자 중 군승수급 대상 연령그룹을 어떻게 보다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와 종단이 협의하여 장기복무 확대 등 전력보존을 위한 방안도 있지만 군은 다양한 병과와 인원으로 조직되고,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 인력조정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불교만을 위한 특별한 예외를 적용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군종사관후보생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각 연차별로 인력수급 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 매년마다 임기응변식 요원확보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상황입니다. 제3기 군종교구장 시기 일방적으로 시행한 군종사관후보생 제도 무력화와 전원 군종요원 선발 방안은 결국 큰 패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시금 후보생에 관심 있는 대상들에게 군포교의 절박성을 적극 홍보하여 젊은 불자들이 사명감과 순교정신으로 자발적으로 뛰어들게 해야 합니다.

군종병 출신자들이 군법사로 재입대하거나 요원 선발시 특별 우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사가 전문하사를 지원하거나 부사관 혹은 장교 지원시 일시불 생활지원금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듯 군법사 복지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불하여 생활지원이나 차량, 포교 자재 등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는 듣지 않는 일방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먼저 다양하게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이나 종단, 군종교구에 요구하는 바가 각기 다를 것이고 다양할 것이라 봅니다. 그들을 미래불교의 동역자로서 인정해주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여야 합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대원불교학술총서 • 1

한국불교통사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대중서를 지향하면서도 철저히 정사(正史)에 의지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 책은 새로운 형태의 한국불교사 입문서이다.

김경집 지음/신국판/392쪽/값 20,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대원불교학술총서 • 2

불교의 무의식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두 주제에 대해 유식학파의 알라야식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불교의 마음이론에 대한 정치한 체계를 만날 수 있다.

윌리엄 왈드론 지음/안성두 옮김/신국판/456쪽/값 23,000원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대원불교학술총서 • 3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비구니 승가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비구니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인식, 차별적 관습과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초기 경전의 비교를 통해 밝혀낸다.

아날라요 스님 지음/김철 옮김/신국판/360쪽/값 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소리명상 치유사 '붓다볼 명상지도사' 탄생

(사)싱잉볼치유의소리 12 · 13일 2급 수료식

승가 재가자 총 13명 지도사 배출
붓다볼 명상지도사 2급 과정 이수
"싱잉볼, 불교법구로 인식돼야 해"
8월 4~6일 특별 과정 진행 예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싱잉볼치유의소리는 7월 12일과 13일 홍법사 경내와 (사)싱잉볼치유의소리 명상실에서 '붓다볼명상지도사 2급 수료식'을 진행했다.

싱잉볼을 법구(法具)로 활용하며 불교 명상으로 안내할 '붓다볼 명상지도사'가 탄생했다. (사)싱잉볼치유의소리(이사장 심산)는 7월 12일과 13일 홍법사 경내와 (사)싱잉볼치유의소리 명상실에서 '붓다볼 명상지도사 2급 수료식'을 진행했다.

2급 수료자는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원장 적연 스님과 행복선원 주지 연암 스님, 봉녕사승가대학장 의천 스님, 봉녕사승가대학 교무 도연 스님, 봉녕사승가대학원 교수 선정 스님을 비롯해 김강미 (사)싱잉볼치유의소리 사무국장, 한선미 포교사 등 스님 5명과 재가자 8명으로 총 13명이다.

12일에는 재가자 8명의 수료식 및 실기시험이 진행됐으며, 13일에는 2박 3일 동안 진행된 붓다볼 명상지도사 2급 특별과정 스님들의 수료식이 열렸다.

(사)싱잉볼치유의소리 창립 이후 처음으로 배출한 '붓다볼 명상지도사' 2급 이수자로 그 의미가 크다.

이사장 심산 스님은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불교의 법구인 붓다볼의 정체성을 확장하고 뿌리내리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산 스님은 "젊은 세대를 위해 다양한 불교문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불교명상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소리명상은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봉녕사승가대학과 일반 포교현장에서 활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적연 스님은 "심산 스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 불교를 전할 때 매개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소리명상이 주는 효과가 크고 수행의 도구로서 큰 이익이 있다. 정착시키고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학인 스님에게도 교육하며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스님들은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 20시간 동안 붓다볼 명상지도사 2급 과정을 이수했다. 프로그램 과정은 붓다볼을 이해하는 이론 과정과 만트라, 붓다볼 육법공양, 붓다볼 테라피, 붓다볼 호흡명상 등이다.

스님들은 붓다볼 명상이 주는 치유 효과에 공감하며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의천 스님은 "싱잉볼은 다른 법구와 달리 소리의 울림이 길다. 손에 올리고 원을 그리며 아미타부처님을 부를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몰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행복감이 생기고 치유가 되는 순간"이라며 "승가대 4학년 스님들에게 붓다볼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학인 스님들도 체험을 하면서 치유와 행복감을 느끼고 정화를 경험한다"고 말했다.

연암 스님은 "16여 년 동안 사부대중이 함께 법회에서 싱잉볼을 활용하고 염불을 했다. 서로 주고받는 염불 속에서 정화되고 깊이 몰입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며 "그동안 구체적으로 싱잉볼을 배우고자 노력해왔지만 타 기관에서는 불교적 방법이나 용어를 쓰지 않아 거부감도 들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중에게 선사할 많은 방법을 배우고 정리할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붓다볼'은 싱잉볼을 불교 명상 수행을 위한 법구로 정의하며 부르는 명칭이다.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숙 (사)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는 "붓다볼 법구의 가치를 안내하며 만난 모든 분들이 스승이셨다. 스님들과 도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회를 전했다.

붓다볼 명상지도사 2급 과정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하는 2박 3일 특별과정이 열릴 예정이다. 금요반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와 7시 30분에 진행 중이며 현재 신청 가능하다. 051)508-0348

견강암, 초복 맞아 어르신 보양식 공양

7월 13일, 삼계탕 700인분 전달

자비나눔도량 부산 견강암(주지 향공)이 7월 13일 부산 사상구 고동바위 공원에서 '건강 보양식 나눔'을 진행했다.

견강암 주지 향공 스님과 견강암 봉사단체 정각원 회원들은 다가온 초복을 맞아 보양 건강식 삼계탕 700인 분을 마련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현장에는 인삼과 당귀 등 보약 약재와 찹쌀로 끓인 삼계탕이 마련돼 있었고 식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엄지를 치켜들며 맛있다며 활짝 웃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은 스님과 봉사자들에게 합장 인사를 하며 "이번 여름은 덕분에 건강하게 지낼 것 같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건강보양식 나눔은 신도들이 보시한 백중기도비와 십시일반 후원하는 정각원 회원들의 회비로 마련됐다. 아직 백중 기도 회향 전인데 어떻게 경비를 마련했느냐는 질문에 봉사자는 "우선 외상이다"며 웃었다. 이어 "언제나 백중기도를 나눔으로 회향한다. 이번에는 초복이 먼저 다가와서 진행하게 됐다. 초복이 다가오고 백중이라 효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삼계탕을 준비했다"고 답했다.

뜨거운 삼계탕을 나르며 연신 땀을 닦던 주지 향공 스님은 "나눔을 위해 출가했다. 나눔은 곧 모두가 함께 살고 공덕을 쌓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도시락 배달을 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소통을 해왔다"며 "봉사는 계속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다. 두 달 전부터 대면으로 점심 공양을 나눌 수 있게 됐다. 오늘은 특히나 활기가 넘쳐 더 신난다"고 말했다.

견강암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고동바위 공원에서 국수 만발공양을 진행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견강암이 7월 13일 부산 사상구 고동바위 공원에서 '건강 보양식 나눔'을 진행했다.

명경문화재단 주석 스님 동국대에 3억원 쾌척해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7월 7일 본관 4층 총장실에서 명경문화재단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명경문화재단 이사장이자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 견미리 명경문화재단 이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동국대에서는 윤성이 총장,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등이 함께 했다.

전달식에서 명경문화재단은 매년 3000만 원씩 10년간 총 3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이 기부금은 동국대 문화예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은 "여러 정성과 소중한 인연들을 통해 모은 기금을 동국대 문화예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부불대, 승려연수인증 교육 실시

8월 22~26일, 연수인증 점수 30점 부여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이 '뇌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 붓다의 깨달음과 마음의 구조'를 주제로 승려연수인증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8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3시간으로, 총 15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시간 80% 이상을 참석했을 시 승려연수인증 이수점수는 총 30점이다.

비대면 줌으로 열리는 이번 강의는 문일수 동국대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가 담당한다. 문일수 교수는 서울대학원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New Brunswick(UNB)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2600년 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새로운 전문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부처님이 누구보다 뛰어난 뇌과학자'임을 강조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이해하며 의근과 사띠를 관리해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을 일러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한다. 교재는 〈오온과 전오식〉 및 〈의근과 의식〉이다.

강의는 △마음과 뇌의 상관관계와 뇌의 속성 이원론 △수온(受蘊) 및 상온(想蘊)의 뇌과학과 행온(行蘊) 및 식온(識蘊)의 뇌과학 △안근(眼根)과 안식(眼識), 이근(耳根)과 이식(耳識)의 뇌과학 △비근(鼻根), 비식(鼻識), 설근(舌根) 설식(舌識), 신근(身根), 신식(身識)의 뇌과학 △등무간연(等無間緣) '돌출자극탐지(salience detection)' 기능 △연접가소성: 뇌신경회로의 기본 속성, 인지조절신경망과 알아차림(sati)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10만 원이다.

학장 범혜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과학을 통해 진리임을 증명하고, 현대에 어울리는 강의를 마련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불교 가르침과 수행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조계종 종단의 스님들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재교육을 통해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9월 19일부터 6개월 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부동산 융합풍수학과'를 운영한다. 강사는 부산이산학회장 여해 스님이 담당한다. 여해 스님은 한국풍수의 최고 권위로 인정받는 장태산 선생에게 사사했다. 교육비는 월 7만 원이다. 051)711-070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여름김치 전달

지역 내 저소득 150세대에 김치 후원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대표 지현)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이 7월 8일 지역 내 저소득세대를 위한 '여름김치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여름김치지원사업'은 겨울에만 집중된 김치지원사업의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 사하구 다대동 4지구 BMC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0세대다.

이날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세대 당 나박김치(500g), 깍두기(500g), 배추김치(1kg)로 구성된 김치박스를 전달했다. 김치는 총 300kg으로 300만 원 상당이다. 김치를 전달받은 지역주민들은 "여름이라 덥고 음식도 잘 상해서 식사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겨울에 맛볼 수 있는 김치를 받아 식사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두송종합사회복지관이 7월 8일 지역 내 저소득세대를 위한 여름김치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다. 더위와 함께 식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께 시원한 여름김치를 전달했다"며 "신선한 음식으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한불교 영산법화종 **영산법화사**

2022년 하반기 종도모집

재단법인 영산법화회는 대한민국 제일 법화도량으로 법화조사님의 개창 66주년을 맞이하고 동시에 장흥도량에 큰 불사를 앞두고 있어 법화경에 인연 있는 종도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법화경 전문 도량으로 현재 공찰이 미국 LA 외 전국19개 도량이며, 기본자산이 일천억이 넘은 법화 제일 도량입니다. 스님 복지 우선으로 4대 보험, 각종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현재 재단 이사장이며 교단에 법주 이신 행학 큰스님을 위주로 법화홍통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법화도서관 및 법화노인요양원 등 사회에 이바지하는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화홍통(法華弘通)으로 꿈과 희망을 찾으시려는 재능 있는 많은 인재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꿈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해드립니다.

나무묘법연화경

- **모집대상** : **출가승려, 행자, 법화경 연구자, 사찰등록 하실 분**
- **모집인원** : 00명
-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반명함판사진 3매
  법당내부 · 외부 사진(사찰등록하실 분), 타종단 법랍인증(승려증사본)
- **출가행자 모집** : 18세 이상
- **분 담 금** : 상담 후
- **영산법화사 각 도량 소개** : 영산법화사 홈피(http://ysbuphwasa.org) 참조
- **디지털법화도서관** : 법화경 관련 서적 50여종
- **문의전화** : **02)762-4922** (서울 종로구 동숭길116 영산법화사 본사)

※ 본 재단은 개인재산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이사장 행 학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동체대비 실천 '월주 스님' 1주기 추모 이어져

금산사서 원적 1주기 맞아 추모전시회도 개최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동체대비(同體大悲)·요익중생(饒益衆生)의 삶을 실천했던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원적 1주기 다례재가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엄수됐다.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는 7월 11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태공당 월주대종사 추모1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다례재는 태공문도를 대표해 도영 스님의 헌향, 평상 스님의 헌다, 도법 스님의 헌화에 이어 삼배, 종사영반, 참석자 헌화, 월주대종사 생전 영상법문 시청,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추모사, 도영 스님과 일원 스님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일평생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삶을 사셨던 대종사님의 법향이 시간이 지나도 제자들은 한없이 그립기만 하다"며 "세상이 어려울수록 사회 속에 불교의 가르침을 실현하시고자 하셨던 그 큰 원력으로 빈자리는 더욱 커져만 간다"고 스승을 기렸다.

스님은 또 "대종사께서는 종단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고 군부의 칼날 앞에서도 정의를 놓지 않았으며 귀일심원 요익중생의 가르침으로 사회적 약자에 자비의 손길을 내주었다"며 "불법은 항상 세간에 있음을 역설하시며 지구촌의 미래를 걱정하신 스님, 보현행원을 실천하며 대보살의 삶을 사신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뒤를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문도를 대표해 도영 스님은 "은사 스님은 40년 전에 〈보살정로〉라는 책을 내시면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펼치셨고 사회를 맑게 하겠다는 원력으로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맡아 활동을 해오셨다"며 "우리민족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구촌공생회를 설립하셨다"고 회고했다.

도영 스님은 이어 "대종사께서 100세까지 사셨다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스님의 뜻을 천분의 일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짐하는 1주기 추모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월주 스님 1주기를 맞아 불자들이 처영기념관에서 추모전시회를 열었다.

도영 스님 "가르침 실천 중요"
1000여 대중 모여 추모 행렬
2주기엔 부도탑 건립 등 예정


다례제 헌화 모습.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무더운 날씨에 원근각지에서 왕림해주신 사부대중들께 감사드린다"며 "제가 불민해서 아직 부도를 모시지 못했지만 내년 2주기에는 부도를 모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재에 참석한 군산 은적사 신도 김현서 불자는 "큰스님 생전에 가까이서 뵐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신행생활에 큰 영광이라 생각한다. 1년이 지나 뒤돌아보면 곁에만 계셔도 마음이 편한 큰 어르신이었다"고 회고하고 "1주기를 맞아 큰 스님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마음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례재를 마친 사부대중은 처영기념관으로 장소를 옮겨 '태공 송월주 큰스님 추모전시회'를 관람했다. '세간을 떠나 진리를 구할 수 없다'는 스님의 생애를 담은 추모전시회는 동체대비(同體大悲), 세계일화(世界一花), 송백지절(松柏之節)의 주제별, 시기별로 활동상황을 정리해 구성됐다.

평소 '불법(佛法)은 세간(世間)에 있고 깨달음은 세간을 떠나 있지 않으니, 세간을 떠나 깨달음을 구하면 그것은 마치 토끼뿔과 거북털을 구함과 같다'는 가르침과 총무원장을 마치고 지구촌공생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활동 등 속세로 다시 돌아오는 제2의 출가로 일평생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현장을 사진에 담았다.

한편, 이날 추모다례재에는 도영, 도법, 평상 스님 등 태공문도 스님들과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암도 스님, 원로의원 보선 스님, 법타 스님, 원행 스님, 지명 스님,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백년대계본부장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민족공동체본부장 월우 스님, 소청심사위원장 동명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삼혜 스님, 기획실장 법원 스님 등 조계종 집행부 스님들과 17교구 본말사 스님들, 조봉업 전북행정부지사, 정성주 김제시장과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을 비롯한 각급 신도신행단체 불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유지를 기렸다.

한편 전북 정읍 산외면에서 출생한 월주 스님은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전북종무원장, 총무원 총무부장, 동국대 이사, 중앙종회 의장, 제17대, 제28대 총무원장, 원로의원 등 종단의 주요 공직을 역임하고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펼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 나눔의 집 이사장, 지구촌공생회 대표 등을 역임했다. 2021년 7월 22일 김제 금산사에서 입적했다.

대구교사불자회 창립 24주년 기념 총회

대구교사불자회(회장 정영채)가 7월 9일 능인중고등학교 반야전 3층 법당에서 신임회장 취임식 및 대구교사불자회 창립 24주년 기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승가대학장 종인 스님과 능인학원 교법사 원경 스님, 문수 스님, 김화연 전국교사불자회장과 교사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영채 회장(능인중학교 교장)은 "직능신행 단체로써 청소년 교육과 불교포교에 막중한 책임을 가져 미래 불교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자"고 말했다

초청법사 종우 스님은 "수행은 곧 자기 마음자리를 보는 것"이라며 "불자교사로 지식은 지혜로, 행위는 행동으로 자기의 마음을 밝혀 보리심을 증장시키자"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진안 쌍봉사, 지역장애인 문화행사 지원

7월 12일 시각장애인 위한
경로문화행사서 봉사 활동

9일 청각장애인 자비나눔
마을밥상 등 봉사도 진행


진안 쌍봉사 대중들이 지역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지역장애인들을 위해 경로문화행사를 후원하고 나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과 만복의 소리 봉사단, 쌍봉사 섬김봉사단은 7월 12일 진안 시각장애인협회(회장 김춘심)가 진안군 전통문화전시관에서 개최한 진안군 시각장애인 경로문화행사에 참여해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시각장애인 경로문화잔치에는 시각장애인 80여 명과 진안 쌍봉사 섬김봉사단을 비롯한 봉사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쌍봉사 섬김봉사단과 만복의 소리 봉사단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심식사 배식 봉사를 펼쳤으며 쌍봉사 보경 스님은 선풍기 등 여름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들은 진안군과 쌍봉사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노래자랑, 초청가수의 공연을 즐기며 코로나 확산 이후 3년 만의 문화행사를 만끽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진안지역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보면 애뜻한 마음이 들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다행히 쌍봉사 섬김봉사단과 만복의 소리 봉사단 불자들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어 마음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과 전춘성 진안군수, 김춘심 시각장애인협회 진안지부장, 김남희 전북시각장애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쌍봉사는 지난 6월 진안지역 장애인들을 초청해 장애인 문화한마당을 개최한 바 있다. 7월 9일에는 진안지역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센터 관계자 등 30여명을 초청해 마이산 홍삼족욕카페에서 족욕체험을 진행했다. 또 삼겹살을 함께 먹으며 청각장애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진안읍 포교당인 쌍봉사는 특히 '찾아가는 마을밥상'을 운영하고 반찬나눔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순 벚꽃길에서 가지치기된 벚나무를 살펴보는 스님과 불자들.

천년고찰 개천사 벚나무길 훼손 파문

천년고찰 화순 개천사(주지 보원) 입구 벚나무가 심하게 잘려나가 사찰 신도들과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개천사 인근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대명에너지 측은 전남 화순군 춘양면에서 개천사까지 1.3km 구간 가로수를 가지치기 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나무들이 수령 20~30년 된 벚나무로 화순 벚나무 축제 등의 자원이었던 것. 가지치기 작업 명목으로 심하게 훼손된 벚나무를 본 개천사 신도들과 지역주민들은 함께 항의와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명에너지 측은 "해당 구간은 가치치기 명목으로 화순군의 허가를 받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지난 5월 마을 입구 느티나무 가지치기 과정에서 심한 훼손으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었다.

개천사 주지 보원 스님은 "사찰 입구의 아름다운 벚나무를 전지작업이 아닌 절개 수준으로 심하게 잘라내면서 지역의 큰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사찰과 마을의 심각한 피해를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단순한 전지작업을 넘어 사찰 인근에 조성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의 장비를 이송하고자 계획적으로 훼손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개교 40주년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 연수 인증교육 [비대면 ZOOM]
■ 과 목 : 뇌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 붓다의 깨달음과 마음의 구조
■ 일 정 : 2022년 8월 22일(월)~26일(금) 5일간 13:30~16:30
■ 교 수 :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 (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 교육비 : 10만원
■ 특 징 :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부동산 융합풍수학과
■ 개 강 : 2022년 9월 19일(6개월간 매주 월요일 오후7시~9시)
■ 교육비 : 월 7만원
여해스님 (부산이산학회 회장, 한국풍수최고봉 이산 장태상 선생 수제자)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원폭 희생자 위령 아미타불, 67년 만의 귀향

1950년 원폭돔 근처 사찰에 봉안
1955년 일시 폐사되며 소재 묘연
2011년 4백km거리 나라현서 발견
지난 7월 1일 히로시마 이운 점안

박영빈 객원기자


히로시마로 돌아온 '히로시마 대불'.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령하기 위해 히로시마 시내 사찰에 봉안됐던 거대한 아미타불상, 행방불명되었던 '히로시마 대불'이 약 67년 만에 귀향길에 올랐다. 전쟁의 아픔과 평화를 위한 불상의 귀향을 지난 7월 3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1950년, 미군정 치하의 일본에서 원폭 희생자들을 위령하기 위해 높이 약 4m에 달하는 아미타대불이 폭심지였던 원폭 돔 근처 사찰에 봉안됐다. '히로시마 대불'로 명명된 이 불상은 13세기경에 조성된 목조 좌불로, 봉안 이후 매년 원폭투하일인 8월 6일마다 지역 부흥을 위한 여름 축제를 겸하여 성대한 법회가 봉행됐다. 당시 기록과 사진자료들에 따르면 5마리의 소가 끄는 우차에 불상을 모시고 시 중심가를 순회하는 행렬을 하는 등 지역에서 소중하게 모셔져왔다,

그러나 1955년 히로시마 재정비 사업으로 불상이 모셔진 사찰이 일시 폐사되면서 불상의 행방과 소재가 불명확해졌다. 그러다 지난 2011년 원 봉안처에서 400km가 떨어진 나라현의 한 사찰에서 대불이 발견됐다.

나라현에 소재한 천년고찰 고쿠라쿠지(極楽寺). 주지인 다나카 젠기 스님은 "선선대 주지스님이 고물상을 통해 모셔왔다. 당시 스님껜 '히로시마에서 온 부처님'이라고만 전해 들었다"며 고쿠라쿠지에 봉안하게 된 내력을 전했다. 스님은 "이후 고서점에서 발견한 사진집에 이 불상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곤, 혹시나 히로시마 대불이 아닌가 생각해 나라국립박물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011년 나라박물관은 고쿠라쿠지에 안치된 불상이 '히로시마 대불'임을 확인하면서 코쿠라쿠지는 원폭투하일에 맞춰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재를 매년 올려왔다.

행방불명되었던 대불의 발견은 히로시마 불교계에 큰 기쁨을 안겨 줬다. 이후 젠기 스님은 "고향으로 한 번이라도 돌려보내고 싶다"고 발원, 히로시마 불교계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과 위원회를 발족하여 방법을 모색했다. 먼저 대불을 안치할 장소부터 난항이었다. 위원회는 여러 장소를 물색한 끝에 본래 원폭희생자들을 위해 일부러 폭심지 근처에 봉안했던 역사에서 원폭돔이 내려다보이는 빌딩의 전시장을 빌려 봉안하기로 결정했다. 비용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금하여 불상의 귀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지난달 21일, 히로시마 대불은 머리, 몸체, 발 셋으로 분리되어 히로시마로 이운됐다. 이운을 담당한 업체는 "평소 대형 기계의 운반이나 설치를 주로 하고 있으나 대불 운반은 처음이었다"며 "희생자들을 돌보는 부처님이 원래의 자리로 오신다는 말에 큰 책임을 느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1일, 히로시마 불교계의 스님들이 모여 봉행된 점안식에서 젠기스님은 "뒤를 이어나갈 젊은 세대들이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평화를 사랑하길 바란다"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불상이 귀향한 의의를 전했다. 히로시마 대불은 오는 9월까지 히로시마에 봉안되며, 오는 8월 6일엔 옛날의 행렬과 천도재를 다시금 부활할 계획이다.

티베트불교, 印에 불교연구소 만든다

겔룩파, 달라이라마 의지로 설립
날란다대학 학문·연구 보존 목적


국제불교연구소 기자회견에 참석한 달라이라마와 각계 교수들. 사진출처=더 티베트 포스트

티베트 온라인 언론 '더 티베트 포스트'는 7월 4일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 중 하나인 겔룩파가 설립한 '겔룩파 국제재단'이 국제불교연구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4일 인도, 맥그로드 간즈에 위치한 노르부 하우스 호텔의 피스 홀에서 국제불교연구소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다. 제14대 달라이라마와 함께 겔룩파 국제재단의 위원인 간댄 티 린포체, 장체 최제 린포체와 전 국제유전자-생명공학센터장 비란더 차우한 교수 등이 연구소 설립을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현 달라이라마의 목표에 따라 설립되는 것으로, 겔룩파 국제재단 측은 "이 국제불교연구소는 고대 인도불교의 지혜와 교육을 미래에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고망 사원의 전 방장 게쎄 롭상갤챈 스님은 "이 불교연구소는 5세기에 인도 비하르 주에 있었던 날란다 대학에서 티베트 불교로 도입되어 수세기 동안 발전한 독특한 형태의 교수법과 교학 연찬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교육과정이 고대 날란다 대학의 전통에서 비롯됐음을 밝혔다. 이어서 "기존 전통강원이나 불교대학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과목에 대한 자체적인 학습 과정을 개발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며 "연구소는 대학으로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겔룩파 국제재단은 현재 국제 불교연구소의 커리큘럼에는 비교종교학, 현대과학과 불교과학, 서양철학, 불교사학, 언어학같이 전통적인 강원체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대 과목들을 가르칠 예정이며 인도의 여러 사찰과 강원에 이 연구소의 지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쇽 타쿠르 교수는 "불교 관련 기관에 속한 젊은이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불교와 티베트의 유산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 "불교연구소 설립은 불교 보전과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달라이라마와의 토론에서 불교 연구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印, 20년 방치한 불교유적 보존 작업 돌입

1986년 힌두사원 무너지며 발견
아쇼카왕 초상 조각 출토돼 눈길


20년 넘게 관리 소홀로 방치됐던 칼라부라기 유적의 대탑지. 사진출처=더 힌두

2001년 일부 발굴 후 방치됐던 고대 불교유적지가 드디어 체계적인 보존 작업에 들어간다. 7월 11일 인도의 '더 힌두'는 그동안 간과됐던 남인도 칼라부라기(Kalaburagi) 지구 불교유적에 대해 보도했다.

카르나타카주의 칼라부라기 지구에 있는 카나가나할리(Kanaganahalli)유적과 산나티(Sannati)유적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 사이에 조성된 불교유적으로 아돌로까 마하 차이티야(Adholoka Maha Chaitya)로 언급되는 대탑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1986년 유적지 위에 새워졌던 힌두사원이 무너지면서 그 잔해를 치우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 유적지는 아쇼카 대왕의 칙령이 새겨진 비석이 발견되어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1994년과 2001년 유적지의 일부 구역이 발굴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지진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적지들은 특히 중심부에 세워진 대탑 이름 비문과 함께 250구 이상의 고대 비석들이 발견됐다. 특히 이 가운데엔 왕이 왕비와 시녀들에게 둘러싸인 부조상이 있는데 여기에 '아쇼카왕'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현재로는 유일하게 확정적인 아쇼카 대왕의 초상조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구 가량의 불상, 250구 이상의 비석 등도 함께 출토됐다. 그러나 발굴된 유물들은 유적지 한편에 임시로 세워진 슬레이트 창고에 보관돼 왔다.

인도 고고학 조사국(ASI)의 마헤쉬 와리 지역이사는 "그동안 이 곳은 지역 정부로부터 20년 넘게 무시되고, 방치돼 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2001년 발굴 작업 후 이 지역에 박물관을 건립하고 불교성지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계획이 이행되지 못했으며 일부 학자들과 불교신자들이 방문한 것 외에는 유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3동의 창고와 무장경비원만이 유적지를 지키는 황량한 모습이 이어졌다. 2009년에는 주정부가 박물관과 연구소, 현장직원 숙소 등을 건립하겠다고 나섰으나, 관리주체를 ASI로 양도하지 않아 유물들을 옮기지 못하는 등의 일이 지속되고 있다. 아쇼카왕의 초상역시 불과 6개월 전에 단독 유리관에 안치됐다.

현장 모니터링을 맡고 있는 니킬다스는 "이 유적지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충분히 등재될 가치가 있다. 가장 먼저 무너진 대탑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첫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모든 유물들을 박물관에 수장하고 전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대탑을 복원하고, 출토된 유물들을 출토지에 다시금 온전하게 재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ASI측은 대탑의 복원과 함께 파괴된 비문과 부조 불상들에 대한 복원 작업도 진행 중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파키스탄 내 유일 불탑, 만키알라 스투파

최근 종교 관광 활성화 위해 외국인에 개방


만키알라 스투파 전경. 사진출처=더 뉴스 온 선데이

지난 7월 10일 파키스탄 주간지 '더 뉴스 온 선데이'는 파키스탄에서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불탑을 소개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인근 군사 중심지 라왈핀디에는 파키스탄에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불탑 만키알라 스투파가 있다.

중세에 이 지역 역사가였던 무함마드 알리프 민하스 저술서 〈라왈핀디의 역사〉에 따르면 카니슈카 왕의 제4차 불전결집 내용이 만키알라 학자들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수많은 불교사원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라왈판디 지역이 고대 불교의 중심지 중 하나인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영국의 역사학자 존 키이는 〈인디아 디스커버리〉라는 책에서 "만키알라 스투파는 추가적으로 조사할 가치가 있다"며 탑에서 발굴된 유물들의 중요성에 대해 서술했다.

키이는 "벤츄라가 란짓 싱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부처님 모습이 새겨진 첫 동전을 비롯해 금과 보석, 동전들이 가득 든 원통형 상자를 발굴했다고 한다. 또한 말뼈로 추정되는 조각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현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사리장엄구"라고 말했다,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종교 관광을 촉진하고 세계에 평화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종교 관광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만키알라 스투파 주변에 경계 벽을 세워 해외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만 개방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장기이식 기다리는 3만9천명에 새 생명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7월 11~12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정리하고 떠나는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⑦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현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 7월 11~12일 이틀 동안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캠페인 진행
설명 듣고자 어르신들 발길 줄이어
“희망등록 한 난 생명나눔 홍보대사”

장마와 불볕더위가 번갈아 가며 기승을 부리던 7월 11일, 서울 종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 2층에 찜통 더위를 가르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복지센터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의 의미와 희망등록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진 것.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센터 로비에 테이블 2개를 설치하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특히 이날은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 만에 센터에서 캠페인이 진행돼 주최하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측은 물론이요, 센터 측 역시 활기가 넘쳤다.

“살아있을 때 기증하는 것인가요?”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지요?”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이라면 누구나 기증할 수 있나요?”

로비에 설치된 부스를 지나가던 어르신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장기기증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다. ‘장기기증’ 이라는 단어에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나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어르신들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세요.”**
> **“짧은 시간을 투자하면 사후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날 센터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어르신 중 최장수인 김00(93세) 어르신은 “죽으면 육신은 다 쓸모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후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명나눔 측의 설명을 듣고 희망등록을 결심했다”면서 “희망등록을 하고 나니 뿌듯하다. 자녀들에게도 제도를 잘 설명해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년 전 캠페인에서 이미 각막을 희망등록했다는 전00(83세) 어르신도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이라면 누구나 기증할 수 있다니 나이 들어 보람된 일을 하나하나 추가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면서 “내가 곧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희망등록을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에게 생명나눔을 권선하는 것은 물론이요, 만약을 대비해 앞으로 더욱 건강한 몸을 유지할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들은 “장기기증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생명나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생각이 정리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사후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국가 법령에 따라 보조금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정리하고 떠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문00(86세) 어르신은 “죽으면 다 쓸모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되물으며 “사후 화장이나 매장으로 없어질 몸을 기증해 간절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간다고 생각하니 기뿐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장기기증 참여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오랜 유교문화권에 있었다 보니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체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7월 11~12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된 희망등록 캠페인에서는 설명을 들으러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형열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고 막상 기증 상황에 닥쳤을 때 자녀들의 반대가 심해 넘어야 할 벽이 높지만 이틀 동안 부스에 어르신들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어르신들의 의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희유 스님은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죽음과 관련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이 꽤 긍정적”이라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타인을 위해 마음을 나누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 생명나눔 운동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총 210만 3263명으로 전 국민의 약 4%가 희망등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장기기증은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 수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2021년 말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3만 9261명이다.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9년 3만 29990명, 2020년 3만 5852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가장 숭고한 으뜸 보시”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시 중 가증 으뜸이 되는 것은 장기기증”이라고 강조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해 수년 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오는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부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에서 웰다잉을 주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준비된 임종을 맞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죽음에 대한 준비이자,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평가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만큼 상담과 프로그램에는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도 포함돼 있다.

희유 스님은 “사람은 죽으면 결국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죽음을 앞뒀을 때 가장 숭고한 보시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힘쓴다”고 설명했다.

희유 스님은 동국대에 재학 중이던 2000년,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함께 시신 기증 서약까지 했다. 의과대학에 다니던 속가 친동생에게서 해부학 실습을 위한 시신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스님은 교정에 캠페인을 나온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스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즉석에서 희망등록했다.

희유 스님은 “장기기증이야말로 보시행을 강조하는 부처님 가르침과 가장 맞닿아 있는 실천행”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희망등록 후에는 현재를 더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드니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희유 스님은 특히 조혈모세포 희망기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혈모세포 기증의 경우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나이제한이 있기에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혈연관계가 아닌 이상 기증자와 환자의 조직접합항원이 일치해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수 있는 확률은 2만분의 1로 매우 희박하다. 실제 지난해 가족이 아닌 비혈연 관계의 조혈모세포 기증자로부터 이식 받은 사람은 542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자는 4496명이다. 스님이 평균 연령대가 낮은 서울노인복지센터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을 권선하는 이유다.

희유 스님은 “나의 작은 실천으로 누군가에게 ‘내일’과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면서 “게다가 희망등록 경험은 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위해서라도 많은 이들이 희망등록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해외서 돌아온 우리 성보 '한자리에'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2019년 미국서 환수한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미국 소장자에게서 직접 구입했다.

오는 9월 25일까지 1층 전시실서
'감지은니묘법연화경' 등 40여 점
'백자동채통형병' 등 6점 최초공개
문화재가치 환수경로 등 상세안내



1914년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2006년 환수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환수문화재 4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인규)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사무총장 김계식)은 7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 展을 개최한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5(고려 14세기 후반)' 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조선 국보)등 환수문화재 40여 점을 선보인다.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한 '나전 매화, 새, 대나무 상자' 와 올해 3월 미국에서 환수한 '열성어필' 과 '백자동채통형병' 을 처음 공개하고, 언론에만 한 차례 공개됐던 '독서당계회도(2002년 미국서 환수)' '면피갑(2018년 독일서 환수)' '문인석(2019년 독일서 환수)' 등 6건의 유물도 처음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2019년 미국에서 환수한 '감지은니묘법연화경(27.5cm×900cm, 국립중앙박물관)' 은 검푸른 종이에 불교 경전인 〈묘법연화경〉을 은가루로 필사한 사경으로 전체 7권 가운데 다섯 번째 권이다. 14세기 후반의 특징을 보이는 사경 구성 요소들이 잘 보존돼 있어 연구 및 활용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미국 개인 소장가로부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직접 구입했다.

2006년 일본에서 환수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선조실록 43.3cm×32.5cm, 중종실록 39.1cm×31.3cm)은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이다. 1914년 일본 도쿄대학으로 불법 반출되었으며,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고 그 중 47책이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2006년에 돌아왔다.

처음 공개되는 환수문화재 중 '나전 매화, 새, 대나무 상자' 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나전 상자로, 제작 수준이 높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국내에서 전시, 연구 등의 활용 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가장 최근인 올해 3월 환수해 첫 선을 보이는 '열성어필' 은 조선시대 왕들의 글씨(어필)를 탁본하여 엮은 책으로, 1722년에 간행된 이후 3년만인 1725년에 새로운 어필을 추가하여 묶어 형태가 드문 유물이다.

백자 표면을 구리 안료로 장식한 병인 '백자동채통형병' 은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스탠리 스미스(Stanley Smith, 1876~1954)가 소장했던 것으로, 국외 문화재 반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유물이다.

한편, 출품작 중 가장 오래전에 환수한 문화재로는 2005년 독일에서 영구 대여방식으로 돌아온 겸재 정선화첩과 같은 해 일본에서 환수한 북관대첩비가 있다. 이는 환수 이듬해인 2006년 원래 자리인 북한 함경도 길주(김책시)로 반환됐고, 복제본이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앞마당에 있다.

전시는 △1부 '나라 밖 문화재' △2부 '다시 돌아오기까지' △3부 '현지에서' 로 구성했고, 해외에서 다시 돌아온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환수경로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 전시 공간을 연출했다.

△1부 '나라 밖 문화재' 에서는 돌아온 유물을 통해 우리 문화재가 외국으로 나간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구성했다. 일제가 유출했으나,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2006년에 환수한 국보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을 볼 수 있고, 보물인 '국새 황제지보' '국새 유서지보' '국새 준명지보' 는 모두 한국전쟁 때 도난당했다가 미국과 공조로 그 존재를 찾아내면서 2014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돌아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환수한 '백자동채통형병' 은 미국인 수집가가 반출한 유물로, 국내 소장 사례가 적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전시 작품 중 어보와 국새는 관람객이 다각도로 감상할 수 있도록 회전시키기도 하고, 글자가 새겨진 인면(印面)을 올려다 볼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전시했다.

△2부 '다시 돌아오기까지' 는 전시 유물을 통해 문화재 환수의 여러 방법을 보여준다. 한 · 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일본 소장기관에서 기증받아 환수한 '덕혜옹주 당의와 스란치마' , 한국과 미국의 수사공조로 불법성을 확인하고 국내로 환수한 '호조태환권 원판' 을 통해서는 기관을 통한 기증과 도난문화재의 환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

소장자가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방식으로 들여온 환수문화재인 '문인석' 과 '면피갑' 도 관람할 수 있다. '문인석' 을 소장했던 독일 로텐바움세계문화예술박물관은 해당 유물이 불법 반출된 것임을 확인하고 스스로 반환을 결정하면서 2019년 3월 환수할 수 있었는데, 매우 드문 사례이다.

조선 후기 보병들이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면피갑' 도 독일 상트오틸리엔수도원이 조건 없이 우리나라에 기증하면서 2018년 돌아온 유물이다. 환수 당시에 잠깐 공개되었지만, 국립고궁박물관이 보존처리한 후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고, 면피갑의 안과 밖을 모두 보여주기 위해 복제품도 함께 전시된다.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 희소하거나 문화재적인 가치가 클 경우 '구입' 이라는 방식으로도 환수된 문화재도 있다. '나전 매화, 새, 대나무 상자' 와 '열성어필' 이 경매로 구입한 대표적인 유물로, 이렇게 환수한 유물들은 우리나라에서 전시에 활용되고, 관련 분야 연구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상호작용(인터렉티브) 영상으로 문화재가 환수되는 여러 과정을 관람객이 직접 생생하게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3부 '현지에서' 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국내로 환수되지 않더라도 머물고 있는 현지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그간의 성과를 다뤘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지원했던 해외 소재 문화재의 보존처리 과정과 해외에 우리 문화재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고, 아울러 그 동안의 조사연구 성과를 담은 책자도 직접 읽어볼 수 있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조사, 구입,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직원들, 수많은 국외 문화재의 환수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현지 복원 등에 2013년부터 22억 원 이상을 후원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전문회사 라이엇게임즈, 전시기획자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관람객이 나라 밖 문화재의 각각의 여정을 돕고 있는 생생한 육성을 듣고, 자신만의 느낌을 적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몄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앞으로의 여정에도 애정 어린 비판과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2)3701-7500

풍경소리 54집 발표

다시 희망 꿈꾸고 일상 노래한 '견성의 새 아침에' 등 8곡 수록



좋은 벗 풍경소리가 찬불 창작곡집 '풍경소리' 54집을 발표했다. 여름을 맞이하여 발표하는 이번 54집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다시 희망을 꿈꾸고 일상을 노래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번 54집에는 '견성의 새 아침에' (곽영석 작사 / 서근영 작곡)와 흥겹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복의 씨앗을 뿌려' (서근영 작사 / 서근영 작곡), '칠가식' (정창훈 작사 / 이종만 작곡), '행복은 내가 짓는 것' (반영규 작사 이종만 작곡)과 '우담바라 꽃송이 활짝 피었네' (함현스님 작사 / 이종만 작곡), '바람' (심윤서 작사 / 최미선 작곡), '산사를 걸으면' (이민영 작사/곡), '오늘 좋은날이야' (덕신스님 작사 / 이종만 작곡)가 수록됐다. 모든 곡의 반주음악도 함께 수록했다.

좋은 벗 풍경소리의 찬불 창작곡집 '풍경소리' 는 1996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에 노래집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CD, USB, 악보 등 다양하게 제작되어 일선의 어린이 · 청소년 법회와 불교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행사는 물론 일반 불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박재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7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오후 6~9시) 시간에 '큐레이터와의 대화' 를 운영한다.

이번 7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에서는 서화관에서 '겸재 정선의 산수화' 와 '부채와 대나무로 여름나기' 가 진행되는데 조선시대 여름 풍경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며, 19세기 부채와 나비 그림을 보며 선조들의 여름나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선사고대관에서는 구석기시대 '주먹도끼의 진실' , 신석기시대 '인류 최초의 발명품 토기' 를 만날 수 있으며, 조각공예관의 '고려시대 청동은입사향완' '사리장엄구' '철불, 쇠를 부어 만든 부처' 에서는 불교조각과 공예품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이라면, 도자기의 보존처리 전후 상태를 알아보고 제작기법을 자세히 들려주는 '처리 전 상태를 통해 본 보존과학의 손길과 제작방법 연구' , 금속이 아닌 직물로 된 마패의 보존처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직물마패의 보존' , 신안 해저선에서 출토된 '해저 출토 목간의 보존' 에 대한 설명도 이어진다. **박재완 기자**



세계 최대 불교학대회, 한국서 열린다

19차 세계불교학대회 8월 15~19일 서울대서 개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학술대회인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불교학의 지평을 넓히고 한국불교의 세계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19차 세계불교학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은수)는 오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세계불교학회(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IABS) 제19차 학술대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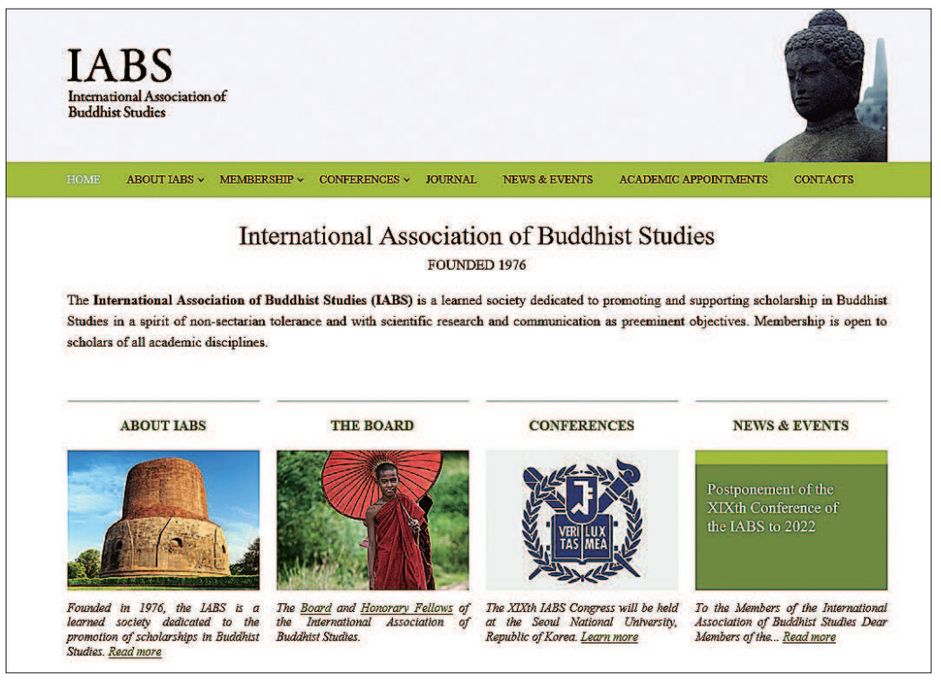
세계불교학회는 1976년 창립됐으며 유럽 · 북미 · 아시아 지역의 주요 불교학자들을 망라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불교학술단체다. 1978년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유럽, 북미, 아시아를 순회하며 3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태국에서 열렸으며, 한국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17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18차 대회에서 중국 명문 저장대(浙江大)와 열띤 경합 끝에 이뤄낸 성과라서 더욱 값지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으로 2년간 두 차례 연기된 끝에 개최돼 기대를 모은다.

5일 간 진행되는 제19차 대회는 50개 패널, 22개 분과를 통해 36개국 500여 명의 학자가 참여하며, 총 495편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각 3시간 30분씩 진행되는 패널과 분과에서는 최대 6명이 발표를 진행한다.

주제는 불교철학부터 문헌학, 미술사, 역사를 비롯해 수행 · 명상, 사회문제, 윤리학 등 폭넓게 다뤄진다. 또한 최근 급성장하는 과학기술과 불교 연구를 접목한 연구 주제들도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패널, 분과 주제로는 △불교 문헌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간다라와 그 너머의 불교 네트워크 △아비담마 수행: 텍스트와 스콜라주의를 넘어서 △한국불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불교의 전통: 연속성과 변화 △간다란 불교 필사본과 비문: 새로운 발견과 연구 △불교 경전 전통에 관한 최근 연구: 텍스트와 맥락 △내륙 아시아에서 발굴된 불교 자료 -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오타니 컬렉션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 △아시아 참여불교의 이론과 실천 △동아시아 불교 연구를 위한 첨단 디지털 도구 워크숍 등이 있다.

36개국 불교학자 500여명 참여
다양한 주제 495편 논문들 발표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동안 연기
韓불교학 세계적 위상 제고 기대

대회에 참여하는 58명의 세계 석학들의 면면도 눈길을 끈다. 서구권에서는 일엽 스님 연구로 잘 알려진 박진영 아메리카대 교수, 남아시아 불교 연구자이자 디지털 기술을 불교 연구에 접목시키고 있는 다니엘 베들링거(Daniel Veidlinger)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중세불교사 전문가인 에릭 그린(Eric Greene) 예일대 교수, 고전 인도철학 전문가 얀 웨스터호프(Jan Westerhoff) 옥스퍼드대 교수, 티베트 문헌 연구로 잘 알려진 클라우스 디터 메스(Klaus-Dieter Mathes) 비엔나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세계불교학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세계불교학회 제19차 학술대회가 오는 8월 15~19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일원서 열린다. 세계불교학대회가 한국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양권에서는 한국불교와 동아시아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찰스 뮬러(Charles Muller) 무사시노대 불교문화연구소장, 한국에는 〈열반경 연구〉로 잘 알려진 시모다 마사히로(下田正弘) 도쿄대 교수를 비롯해 데구치 야스오(出口康夫) 교토대 교수, 광싱(廣興) 홍콩대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19차 세계불교학대회 조직위원회는 방역 등의 이유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학자들을 위해 웹사이트나 줌, 웹엑스 등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학술대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회 이후인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해인사, 운문사 등을 순례하는 한국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조은수 대회 조직위원장(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함께 진행하며 대회 참여율 진작과 파급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외 최신 연구들의 주제 및 방법론을 알 수 있는 초록을 대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불교학자나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도 세계불교학 동향과 한국불교학의 위치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회에서는 역대 최고의 한국불교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며,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세계 학자들에게 제공된다"면서 "이번 대회가 한국불교학의 지평을 확장하고 한국불교의 세계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산 대종사 책임총무원장제, 현 체재 기틀"

동국대 불교학술원, 경산 대종사 조명 학술대회

종정 정신적 지주, 원장 행정 수반
현재 '총무원장 중심제' 체재 주장
"종무 지도자상 정확히 파악" 평가

정화불사의 주역 경산 대종사가 추진했던 책임총무원장제가 현재의 총무원장 중심제의 기틀을 놨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은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의 정법당간 경산 대종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학월 경산의 총무원장 중심제'를 통해 경산 대종사가 추진했던 책임 총무원장제를 조명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경산 대종사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4번 선출됐다. 공식적으로는 통합종단의 3대(1966~67), 9대(1973~75) 총무원장이었고, 1961년 총무원장으로 선출돼 통합종단 출범을 이끌고 조계종 1대 중앙종회 차석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조계사파와 개운사파로 나뉘었던 1979년에 조계사파의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지만, 후일 개운사파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면서 경산 대종사의 임명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조 교수는 "경산 대종사는 4번의 총무원장 재임 모두 중도 사퇴를 하게 된다. 통합종단 출범 이전의 총무원장 중도 사퇴는 통합종단 출범에 따른 자연스러운 사퇴였다"면서 "통합종단에서의 중도사퇴들은 종정 중심제에서 총무원장 중심제를 실현하고자 하던 과정에서 생긴 정치적 대립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산 대종사가 추구하려 했던 총무원장 중심제는 강술집인 〈삼처전심〉 중 '종단 화합을 발원한 성명서'에 잘 나타나 있다. 경산 대종사는 종정을 전종도의 정신적 지주이자 상징으로 추대하고, 총무원장이 종무행정의 책임을 지고 집행하다가 실정할 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을 추구했다.

조 교수는 "경산 대종사가 실현하고자 한 총무원장 중심제는 현재 조계종 종정과 총무원장의 역할 분담과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비록 경산 대종사 생전에 총무원장 중심제가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가 종교조직 안에서 종단 운영에 적합한 지도자상과 그 역할을 정확히 내다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경산 대종사의 수행, 정화불사, 포교행 등도 조명됐다. 이자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교수는 '학월 경산의 수행과 지계'를,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은 '경산 대종사의 정화불사와 종단화합'을,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경산 대종사의 포교행'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김성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 군승장교 원경 스님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인사동 출토 금속활자 불경 언해본과 유사해"

국립고궁博, 인사동 발굴 학술대회

지난해 서울 인사동에서 출토된 금속활자가 조선 전기 불경 언해본의 글자와 가깝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지학자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7월 1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열린 '2021 인사동 발굴, 그 성과와 나아갈 길' 주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도심 탑골공원 인근 인사동 피맛골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조선 전기 금속활자를 비롯해 그동안 기록으로만 전하던 천문시계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부품이 출토됐다.

금속활자는 한자 활자 1000여 점과 한글 활자 600여 점 등이 발견됐고, 세종의 지시로 1448년 편찬된 운서인 〈동국정운(東國正韻)〉 표기법을 사용한 활자와 다양한 크기의 활자가 확인됐다.

활자들을 분석한 옥 교수는 중간 크기 활자와 작은 크기 활자들이 불경 언해본 인출 활자와 유사하다고 추정했다. 중간 크기의 활자는 세조 7년(1461년) 을해자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설아미타경〉 언해본의 글자와 유사하고, 작은 활자 역시 같은 해 간행된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을해자 글씨와 가깝다는 게 옥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언해본을 실제로 인쇄한 한글 금속활자 등장은 서적의 체계만큼이나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지난해 서울 인사동서 출토된 조선 금속활자.

정토학연구 73집 발간



한국정토학회(회장 혜명)은 학술지 〈정토학연구〉 37집을 발간했다.

'다양한 정토세계의 모색'을 주제로 한 특집 논문으로는 경오 스님의 '약사여래 정토관 연구'와 마성 스님의 '미륵사상의 기원과 전개', 오인 스님의 '중국 연종조사설에 대한 고찰(1)'이 실렸다.

기고 논문으로는 김광식의 '청담의 불교현대화 사업과 정신 계승', 박천지 · 신성현의 '백용성 · 김희조 · 홍원기의 찬불가 선율 분석', 이재수의 '호국불교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천안 호두마을 명상센터 아래
문수동 16개 방을
비구니 스님께 세를 놓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명상센터에서
수행하시며 지내실 분에게 좋습니다.

■ 전세 : 1,500만원
■ 월세 : 보증금 1,000만원 / 매달 5만원
■ 2층에 명상홀 사용하실 수 있고 선원에 명상지도 하시는 사야도께 공부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명상센터 內 황토집 매매 가능합니다.

문의 : 010-7468-0021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4

▶ 75회 예고
수상 라다굽따가 노환으로 물러나자 마하데바라가 재등장한다. 마하데바라는 아쇼까왕 즉위 2년에 깔링가국 정벌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추방당했다. 아쇼까왕은 그를 찾아서 수상에 임명하고 깔링가국 정벌을 결심한다.



아쇼까왕, 믿음의 상속자가 되다

잠부띠바 전역에 8만 4천 사원의 건립을 기념하는 축제가 빠딸리뿌뜨라 외성과 내성에서 시작됐다. 아쇼까왕은 라다굽따 수상에게 7일 동안 축제를 벌이도록 지시했다. 축제는 왕의 대관식 때와 같이 끄샤뜨리야 계급의 숫처녀가 히말라야의 호수 아노땃따에서 가져온 물을 아쇼까왕의 머리에 뿌리는 의식부터 행했다.

다섯째 날부터 엿새째 날까지는 연날리기와 검술시범, 활쏘기, 창던지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고, 마지막 이레째 날에는 성민 모두가 참여한 연회가 열렸다. 아쇼까왕은 연단에 마련된 보좌(寶座)에서 일어나 연회장에 운집한 수행자들과 왕실귀족, 성민들에게 짧은 연설을 했다.

"나 또한 고타마 붓다의 다르마를 상속한 사람이오. 믿음의 정수를 설하는 사문들에 대한 나의 관대함은 위대할 뿐이오. 나는 9억 6천만이라는 엄청난 재원으로 8만 4천의 사원을 건립하였소. 각각의 사원은 고타마 붓다께서 설한 8만 4천 법문을 기리기 위한 것이오.

매일 40만의 경비가 지출되었소. 10만은 명예로운 사원들을 위해, 10만은 니그로다를 위해, 10만은 다르마를 설하는 사문들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 10만은 걸식자를 위한 것이었소. 강가강과 똑같은 양의 음식이 매일 제공되었소.

나보다 더 관대한 왕은 지금까지 없었소. 나의 믿음은 실로 확고한 것이오. 그러므로 나는 승가의 보호자인 것이오."

아쇼까왕의 짧은 연설이 끝나자, 연회장에 모인 수 만 명의 불교사문들이 일제히 합장한 뒤 엎드려 절을 했다. 아쇼까왕의 보좌 옆에 앉은 아쇼까라마 주지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도 연단 좌석에서 일어나 아쇼까왕에게 합장하며 예를 표했다. 뒤이어 연회장에 모인 귀족과 성민, 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잦아들자 아쇼까왕이 고개를 돌리며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에게 말했다.

"장로시여, 내 연설이 어땠소?"

"대왕님이시여, 잠부띠바에 8만 4천 사원을 지으신 대왕님이야말로 승가를 보호하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9억 6천만의 재원을 들여 사원을 건립한 신들의 사랑을 받는 왕(데바남쁘리야)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오."

아쇼까왕 옆에 앉은 라다굽따는 어두운 얼굴이 되었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등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전국 도시마다 사원을 지으면서 왕궁 창고가 3년 만에 바닥이 나다시피 했기 때문이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가 덤덤한 말투로 대답했다.

"친절한 대왕님(삐야다시)이시여, 승가에 필요한 물건을 가장 많이 보시하신 것은 맞습니다."

"승가는 나에게 또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소?"

"대왕님께서는 승가를 보호하는 왕이실 뿐 아직 확고한 믿음은 바깥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바깥에 있다니 무슨 말씀이오?"

"믿음의 상속자가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라다굽따를 한 번 쳐다본 뒤 말했다. 라다굽따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쇼까왕이 처음에는 브라흐마교나 자이나교, 그밖에 군소종교 수행자들에게 우호적이었는데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를 만나고 나서는 급격하게 승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 더구나 라다굽따 자신은 브라흐마교를 신봉하는 제관 출신이었던 것이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왕에게 거침없이 아뢌다.

"믿음의 상속자가 되시려면 승가에 아들이나 딸을 보내서 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알다시피 하나밖에 없는 동생 비가따쇼까, 사위, 외손자가 출가했소. 그런데도 아들과 딸까지 출가해야 한단 말이오?"

아쇼까왕의 말은 사실이었다. 아쇼까왕이 브라흐마교에 빠진 비가따쇼까를 불교로 개종시켰고, 사위 악기브라흐마와 외손자 수마나까지 목갈리뿟다띳사를 스승 삼아 출가시켰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동생과 사위, 외손자가 출가했는데 또 아들과 딸까지 수계를 받아야 한다는 목갈리뿟다띳사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이익을 준단 말이오?"

"대왕님은 이미 신들의 사랑을 받는 친절한 왕(데바남쁘리야 삐야다시, 天愛喜見王)이십니다. 거기에다 실로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믿음의 상속자라, 좋소."

아쇼까왕은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최면에 걸린 듯 호응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말을 모두 받아들였다.

"나는 장로의 부탁을 다 들어주었소. 그러니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나와 성민들을 위해 설해 주시오."

"대왕님이시여, 짧은 붓다의 가르침을 설하겠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고타마 붓다의 시를 먼저 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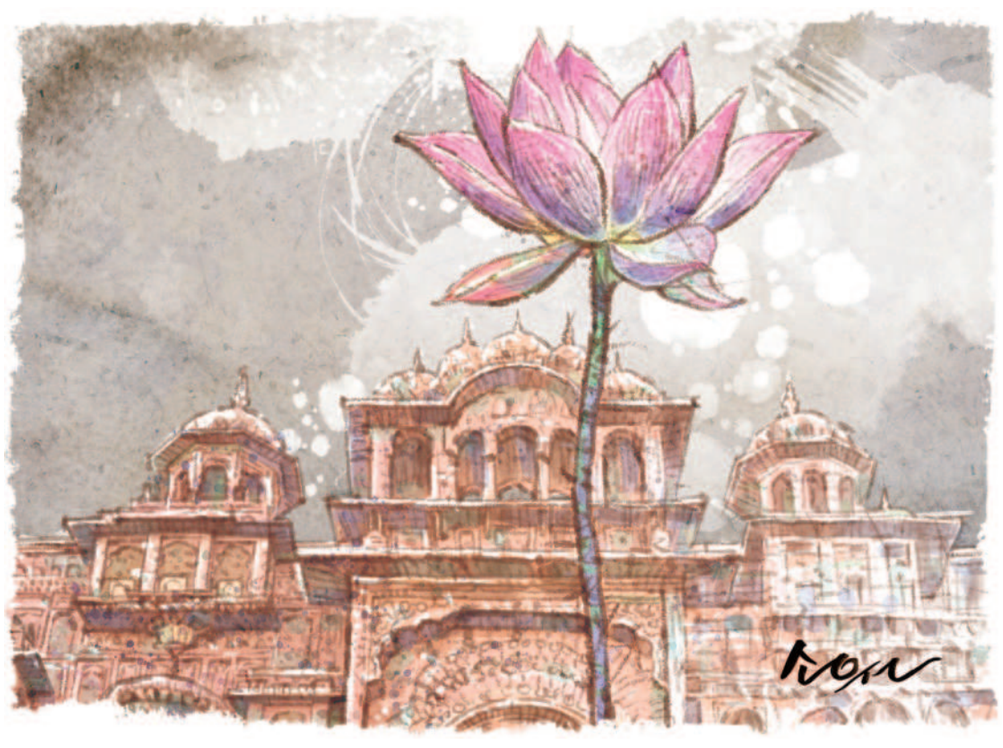
지혜가 없고 삼매가 없이
백년을 사는 것보다
지혜를 갖추고 선정에 들어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이어서 바로 목갈리뿟다띳사는 붓다의 시가 나온 인연담을 설했다. 붓다가 사밧티 제따 숲에 계실 때였다. 카누 꼰당냐 장로와 관련한 이야기였다. 카누 꼰당냐는 붓다에게서 선정삼매에 들라는 말씀을 듣고 숲속으로 들어가 수행하여 거룩한 경지를 성취했다. 카누 꼰당냐는 이 사실을 붓다에게 알리기 위해 숲을 나와 길을 가다가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평평한 바위에 앉아 선정에 들었다.

이때 5백 명의 도둑들이 마을을 도둑질한 뒤 훔친 물건을 각자 머리에 나누어 이고 가다가 밤이 되자 피곤하여 평평한 바위에 앉아서 쉬려고 했다. 도둑들은 선정에 들어 꼼짝 않는 카누 꼰당냐 장로를 나무그루터기로 오인했다. 도둑들은 카누 꼰당냐 머리에 도둑질한 물건을 얹어놓고 또 팔다리에 올려놓았다. 카누 꼰당냐 장로 주위에도 훔친 물건을 쌓아놓고 잠을 잤다. 새벽이 되어 잠에서 깬 도둑들은 카누 꼰당냐 장로를 그제야 발견하고는 귀신인 줄 알고 도망쳤다. 마침 선정에서 깨어난 카누 꼰당냐 장로는 "재가제자들이여, 두려워 말라. 나는 수행자다"라고 소리쳤다.

그제야 도둑들이 카누 꼰당냐 장로에게 다가와 발아래 엎드린 뒤 "저희는 나무그루터기로 잘못 알았습니다"라면서 용서를 빌었다. 그때 우두머리 도둑이 "나는 장로님 밑에서 수행승이 되겠다"라고 말하자 다른 도둑들도 모두 수행승이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장로의 이름은 카누 꼰당냐가 되었고, 붓다는 '지혜가 없고 삼매 없이 백년을 사는 것보다 지혜를 갖추고 선정에 들어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라는 시를 읊조렸던 것이다.



그날 밤.

아쇼까왕은 다르마 대비 별궁에 있는 마힌다와 상가밋따를 불렀다. 두 남매는 연회장에 나오지 않고 다르마 대비별궁에 갇혀 있다시피 했던 것이다. 대비별궁은 두 남매에게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왕자별궁에 사는 왕자들이 두 남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르므로 다르마 대비가 두 남매에게 밖으로 나가지 말도록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야. 나는 왕자들이 죽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봐왔단다. 백성들은 왕궁을 천계(天界)같이 여기지만 내 눈에는 지옥으로 보일 때가 많았단다. 그러니 가능한 한 내 별궁을 나가지 않도록 하거라."

다르마 대비는 아쇼까가 왕위에 오르는 동안 죽어간 수시마부터 그밖에 99명의 왕자를 잊지 못했다. 그 사건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 잠을 자지 못했다. 다르마 대비가 브라흐민 딸로 태어나 브라흐마교를 믿지 않고 불교 사문들에게 의지하게 된 것도 다 죽은 왕자들 때문이었다.

아쇼까왕 침전 다실에는 아쇼까왕의 유일한 조언자 라다굽따가 두 남매보다 먼저 와 있었다. 아쇼까왕이 침전 다실로 들어와서 말했다.

"대비별궁에 있는 아들과 딸을 불렀소."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권유를 따르시겠습니까?"

"마우리아 전 도시에 8만 4천개의 사원을 건립하였으니 이제 나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고 싶소."

라다굽따는 두 남매가 출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두 남매는 대비별궁에서 자유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다르마 대비의 말을 듣고서 라다굽따도 수긍하고 공감했던 것이다. 라다굽따는 수십 명의 왕자들이 죽어간 현장 안팎의 증인이기도 했다.

두 남매는 바이샤 계급으로서 신분적 한계 때문에 왕궁은 살 곳이 못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모하고 불행한 일이었다. 데비 부인이 빠딸리뿌뜨라로 오지 않은 것은 현명한 처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만약 데비가 빠딸리뿌뜨라로 왔다고 해도 왕비가 되지 못한 채 부인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을 것이었다. 아쇼까왕이 라다굽따에게 조언을 구했다.

"수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드님과 따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두 남매분께서 대왕님의 당부를 따른다면 모두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상께서는 반대하지 않는구려."

"아드님과 따님은 반드시 답답한 왕궁을 떠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의 조언을 믿겠소."

그때 마힌다와 상가밋따가 침전 다실로 친위대 조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왔다. 잠시 후 라다굽따와 친위대 조장이 나가자 아쇼까왕이 말했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할머니께서 너무 잘 보살펴주십니다. 다만, 아무 불편은 없지만 새장에 갇힌 새처럼 답답합니다."

"왕궁이 싫으냐?"

"대왕님을 뵀으니 저희들은 베디샤나가르 농원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너희들이 출가한다면 내가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더구나."

마힌다 얼굴이 환해지며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믿음의 상속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나는 얻을 것을 다 얻은 왕이다.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상가밋따가 말했다.

"제 꿈이 맞나 봅니다. 오빠와 제가 코끼리로 변해 우리에 갇혀 있었는데, 대왕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어 마음껏 들판을 달렸지요.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서 풀과 물을 마음껏 먹은 뒤 또 달려가자 바다가 나왔어요. 그때 대왕님께서 배를 내주시어 바다를 건너갔는데, 오빠와 제가 갑자기 수행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꿈에 코끼리가 됐다니 상서로운 꿈이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에게 얘기를 다했으니 내일 아침에 아쇼까라마로 가거라. 그러면 장로가 너희들에게 계를 줄 것이다."

마힌다와 상가밋따는 아버지 아쇼까왕과 헤어진 뒤 친위대 조장을 따라서 다르마 대비별궁으로 돌아왔다. 다르마 대비는 두 남매의 이야기를 듣고는 몹시 안도했다. 두 남매가 베디샤나가르로 돌아가지 않고 아쇼까라마의 수행자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르마 대비는 두 남매가 사문이 되더라도 자신의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는 아쇼까왕도 마찬가지였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⑭ 당(唐) 호법사문(護法沙門) 법림(法琳)

▶ 한줄 요약
중국불교의 역사에서 불법의 혜명이 단절될 상황에서 반드시 목숨 건 대존숙이 출현하여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게 하고, 그에 힘입어 불법이 다시 흥성함을 볼 수 있는데, 당 초기의 법림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유·도 도전 '폐불' 위기에 목숨 건 호법

남북으로 분열된 남북조를 통일시키고 불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던 수대(隋代)는 무리한 고구려 침공에 따른 후유증과 황실의 혼란으로 단명하고, 뒤를 이어 문제(文帝)의 충신이었던 이연(李淵)이 당(唐, 618~907)을 세우게 되었다. 당이 건립되면서 남북조 이래 중국사상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왔던 불교는 다시 유도교 양교의 치열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황가(皇家)의 성인 이씨(李氏)의 조상이 노자(老子, 李老聃)라는 인식과 고조 이연의 모친이 두(竇)씨로서 서한(西漢) 시기 황로학(黃老學)의 절대적 지지자였던 두태후(竇太后)의 후예를 자칭한 까닭에 황실에서는 도교를 지지하였다. 그에 따라 도교의 인물들이 주요 관직에 대거 참여하였다.

이렇게 도교가 권세를 얻자 불교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당의 건립 초기인 무덕(武德) 4년(621), 당시 태사령으로 있던 도사 부혁(傅奕)은 위진, 남북조 시기의 반불교적 인물들을 모아 〈고식전(高識傳)〉을 편집하여 이를 근거로 고조에게 몇 차례에 걸쳐 "불교를 폐하라"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면서 이른바 '불도지쟁(佛道之爭)'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불도지쟁'은 태종(太宗, 재위 626~649), 고종(高宗, 재위 649~683)의 3대에 이르기까지 끝나지 않는 기나긴 논쟁으로 진행되었지만, 초기의 논쟁은 법림(法琳, 572~640)과 그의 속가 제자인 이사정(李師政)에 의하여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그에 따라 당시 자칫하면 극단적인 '폐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법을 지켜낸 법림에 대하여 그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림의 전기는 〈속고승전〉 권24에 실려 있으며, 또한 〈광홍명집(廣弘明集)〉 등에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언종(彦琮)이 찬술한 〈당호법사문법림별전(唐護法沙門法琳別傳)〉 3권(大正藏50 所收)에 그의 생애와 호법의 과정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논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속성이 진(陳)씨이며, 남조(南朝) 진(陳)의 태건(太建) 4년(572)에 영천(潁川, 현 河南省 禹州市)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 출가하였다. 출가한 이후 유학과 불교의 학문을 두루 익혔으며, 금릉(金陵, 현 南京) 등지를 유력하면서 도를 물었다고 한다. 수(隋) 개황(開皇) 14년, 23세에 청계산(青溪山) 귀곡동(鬼谷洞, 현 湖北省 遠安縣)에 7년간 은거하면서 낮에는 불경을 밤에는 속전(俗典)을 열람하였는데, 이 시기에 〈청계산기(青溪山記)〉를 찬술하였으며, 커다란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수(仁壽) 원년(594)에 귀곡동에서 나와 장안(長安, 현 西安) 지역을 유람하였으며, 의녕(義寧) 원년(617)에 도교의 실상을 알고자 황건(黃巾) 도복(道服)을 입고 도사들과 교류하다가 당(唐) 무덕(武德) 원년(618)에 다시 불교로 돌아와 장안의 제법사(濟法寺)에 주석하였다. 이 시기에 법림을 따르는 수많은 승속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태자 이건성(李建成)을 가리키던 동궁학사(東宮學士) 이사정이 재가 제자가 되었다.

무덕 4년(621) 태사령 부혁(傅奕)은 황제에게 11조의 항목을 들어 "불경은 허망한 말만 하고 요사스러운 일만 꾸며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가정을 파괴할 뿐,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오랑캐인 부처[胡佛]의 사교(邪敎)를 다시 천축(天竺)으로 돌아가게 하고, 뭇 사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곧 가정과 나라는 크게 번창할 것이며 노자와 공자의 가르침이 행하여지게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이에 고조 이연은 승려들의 의견을 듣고자 소집하였는데, 특히 법림이 논리정연하게 고조의 물음에 답변하여 부혁의 상소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혁은 지속적으로 상소를 올리고, 또한 그 상소문을 널리 유포하자 법림은 〈파사론(破邪論)〉 2권(大正藏52 所收)을 찬술하였고, 이를 이사정이 태자 이건성을 통하여 고조에게 상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사정도 또한 〈내덕론(內德論)〉(〈廣弘明集〉卷15 所收)과 〈정사론(正邪論)〉을 찬술하여 반박하였다.

법림은 지속적으로 도교에서 불교를 폐하자는 주장이 나타나자 무덕 5년(622) 정월에 황태자에게 상소를 올렸고, 무덕 6년(623) 5월 당시 진왕(秦王)이었던 이세민(李世民)에게 상소를 올리자 부혁의 상소와 관련된 논의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무덕 9년(626) 3월 고조는 경사(京師)인 장안(長安)에 다만 3개 사찰에 1천 명의 승려만 남기고, 나머지 사찰은 모두 왕공(王公)들에게 나누어주라고 조서를 내리지만, 6월 3일에 고조가 퇴위(退位)하고 이세민이 태종(太宗)에 즉위하여 대사면(大赦免)을 내리면서 이 조칙은 무효가 되어 다시 사찰들을 회복하게 되었다. 〈속고승전〉에서는 이러한 대사면이 바로 법림의 공로라고 찬탄하고 있다.

도교 '불도지쟁' 초기 진정시켜
태종 대사면 사찰 회복 큰 공로
익주 사찰로 가던 길 69세 입적



지속적인 도교의 '폐불' 주장이 일자 법림은 진왕(秦王)이었던 이세민(李世民)에게 상소를 올려 일단락됐다. 사진은 당태종 이세민 초상화. 출처=중국역대인물 초상화

이 시기에 법림은 도사 이중경(李仲卿)과 유진희(劉進喜) 등이 찬술한 〈십이구미론(十異九迷論)〉과 〈현정론(顯正論)〉 등을 찬술하여 불교를 폄하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변정론(辨正論)〉 8권 12편(大正藏52 所收)을 찬술하였고, 당시 뛰어난 학자로 평판이 높았던 동궁서자(東宮庶子) 우세남(虞世南)이 그 서문을 찬술하였다.

정관(貞觀) 원년에 태종은 고조를 위하여 남산의 대화궁(大和宮)을 용전사(龍田寺)로 개조하여 법림을 주지로 임명하였고, 또한 3년(629)에 바라파가라밀다라(波羅頗迦羅蜜多羅) 삼장이 장안에 도착하여 〈보성다라니경(寶星陀羅尼經)〉과 〈반야등론(般若燈論)〉 등의 경전을 번역하자 법림은 필수(筆受)를 맡았으며, 〈보성다라니경〉에 서문을 찬술하였다.(大正藏13 所收)

그러나 정관 11년(637) 정월에 태종이 도교의 여관(女官)의 위계를 불교의 비구니보다 앞에 두자 법림을 대표로 하여 반박하였으나 태종은 듣지 않았다. 이로부터 태종의 미움을 사자 13년(639) 9월 도사 진세영(秦世英)이 법림이 찬술한 〈변정론〉이 황실을 비방한 것이며, 그 죄는 황제를 속인 죄라고 음해하였다. 이에 황제는 화가 치밀어 칙명을 내려 승려들의 승적(僧籍)을 몰수하고 환속시키고, 법림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이후 10월부터 형부상서 유덕위(劉德威) 등이 계속 추궁하였지만, 법림이 굽히지 않자 11월 15일 태종이 직접 심문하였는데, 당시 문답이 200여 차례가 있었다고 한다. 20일에 태종은 명령을 내려 7일간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여 신령한 감응이 나타나는가를 지켜보라고 하였다. 7일 후에 법림은 어떠한 감응도 없지만, 〈변정론〉에 한 구절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형벌을 기꺼이 받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태종은 이에 만족하여 법림의 죄를 묻지 않기로 하고, 풀어주었다. 이에 법림은 〈도굴원편(悼屈原篇)〉을 찬술하여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법림은 칙명에 따라 익주(益州, 현 四川 일대)의 사찰로 가던 중에 백뢰관(百牢關) 보리사(菩提寺)에 이르러 병환이 중해지자 법림은 "대장부의 물거품 같고 허깨비 같은 이 몸이, 진실로 아무 데도 쓸모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추악함이 드러난 것을 보니, 매우 싫어할 만하구나! 본래 도(道)를 구함으로써 입신(立身)하리라 기약했는데, 뜻대로 되지 못하였도다. 기린을 위해 울고 봉황을 위해 슬퍼하니, 슬픈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마치고 입적하였다. 이때가 정관 14년(640) 가을 7월 23일, 법사의 춘추(春秋) 69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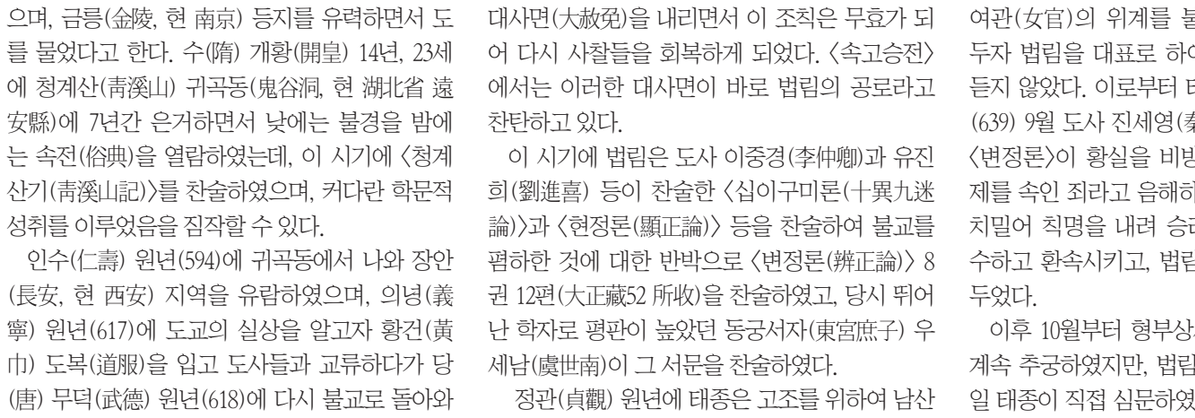
〈속고승전〉의 전기에는 법림의 저술이 "시(詩)·부(賦)·계(啓)·송(頌)비(碑)·표(表)·장(章)·뢰(誄)·대승교법(大乘敎法)과 여러 가지 논(論)·기(記)·전(傳) 등을 합하면 30여 권"이라고 하고, "모두 금석(金石)과 같은 문장이라고 그의 풍운(風韻)을 격찬하였고, 수놓은 아름다운 비단과 같은 문사(文思)라고 찬미하였다"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파사론〉 2권과 〈현정론〉 8권, 그리고 〈광홍명집〉에 실려 있는 〈폐성불승잠(廢省佛僧箴)〉 〈사론(邪論)〉 〈당사문석혜정절의론(唐沙門釋惠淨折疑論)〉만이 현존하고, 대부분이 산실되었다. 그러나 〈당호법사문법림별전〉 3권에는 중요한 문구들이 많이 인용되어 대체로 법림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파사론〉은 부혁이 제시한 11조목 가운데 9개 항목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변정론〉은 12편으로 나누어 불교와 유·도의 차별을 논술하여 궁극적으로 불교가 뛰어난 가르침임을 논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책에서 중국에 불교의 전래로부터 불교를 옹호한 군주와 재상, 그리고 북주 무제의 '폐불' 등을 논하고 있고, 또한 사경(寫經) 등의 구체적인 신앙의 사례까지도 언급하고 있어서 중국불교의 다양한 측면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간략한 법림의 생애로부터 '폐불'의 위기에 목숨을 건 호법의 과정을 엿볼 수 있어 많은 상념이 인다. 중국불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불법의 혜명이 단절될 상황에서 반드시 목숨을 건 대존숙이 출현하여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게 하고, 그에 힘입어 불법이 다시 흥성함을 볼 수 있는데, 당 초기의 법림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호법사문법림별전〉에는 법림이 감옥에서 풀려나오니, 주변의 승려들이 수행이나 하지 무엇 때문에 〈파사론〉이나 〈변정론〉 같은 책을 쓰고, 쓸데없이 황제를 화나게 하여 시끄럽게 하는가 하는 비판을 하자 법림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익주로 떠나면서 "뜻하지 않게 잘못 죄를 쓰고서, 친구도 여의고 또 어버이까지 여의네. 산천(山川)이 만 리를 가로막고 있으니, 이제 7척의 몸이 고달프기만 하네. 혼(魂)은 멀리 초(楚)나라로 가겠지만, 마음만은 나뉘어 홀로 진(秦)나라에 머무네. 스스로 서로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사별(死別)하는 사람을 가엾어 하리"라는 시를 남겼다고 한다.

이로부터 법림이 품은 회포를 느낄 수 있어 더욱 감회가 새롭다. 실제로 당 초기에 법림의 목숨 건 호법이 아니었다면 과연 화려하게 피어났던 당대의 불교가 가능했을까? 물론 법림의 호법으로 '불도지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변역(變易)은 그 초기화가 전체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코 그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사단법인 국제불교 승가회
대광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보승 덕산
총무원장 성원 도현

원로원장 원성 감사원장 원 종 국제포교원장 정 암
중앙종회의장 서 암 법사회장 금강심 사정원장 보 운
교육원장 도 엽 원로부의장 지 현 비구니부회장 화 심

사업부 소속
부장 손연호 (도림 처사) (불단 닫집 법상 제작.등)
부장 노정환 (일연 처사) (불상 단청 탱화 제작.등)

전국 지부
부산교구지현스님 전남교구보운스님 충북교구무광스님
충남교구삼현스님 경기교구일연 경남교구도엽스님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혜정스님 정수법사 해선법사

동양심리상담사 1급,2급 자격증반 운영 반지정사 창원 055-265-0408

총본산-회룡사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가천안길 44-66
010-4001-8476

총무원-용주사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초하로 634-19
055-391-0413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⑭ 둔황 제220굴 서방정토변상도

▶ 한줄 요약
둔황 제220굴 남벽에 그려진 〈서방정토변상도〉는 초당시기에 조성된 벽화다. 둔황연구소 초대 학장인 창슈홍은 "구도나 채색에 있어 르네상스 교회 장식 회화에 뒤지지 않는다"고 평했다.



르네상스 회화 뒤지지 않는 명품 변상도

우리는 '상락아정(常樂我淨)' 즉, 항상 즐겁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것이 이생에서 이뤄지지 못하면 저 생에서라도 이루기 위해 귀의삼보하고 있다. 저 생에서 상락아정을 이루는 곳이 바로 서방정토(西方淨土)다. 경전에서 설한 서방정토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 바로 〈서방정토변상도〉이다.

〈서방정토변상도〉를 통해서 붓다 이래 뭇 중생들이 갈망해온 서방정토가 어떤 곳이며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연재에 이어서 〈서방정토변상도〉의 형식과 예술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진 둔황 막고굴 초당(初唐) 시기 석굴인 제220굴 남벽에 그려진 〈서방정토변상도〉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서방정토변상도〉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한다.

이 〈서방정토변상도〉는 600년 이상 지속되고 변화해오며 축적된 표현형식과 예술적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220굴은 초당의 가장 중요한 대표동굴 중 하나로, 1943년에 이 굴 표층의 송대에 그려진 천불 도안을 떼어내면서 잘 보존된 초당시기 벽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때 동벽과 북벽에서 두 곳의 정관(貞觀)16년(AD 642년)의 묵서제기(墨書題記)가 발견되었다. 벽화는 잘 그려져 있는데, 이미 명확한 중원 양식을 띠고 있다. 둔황연구소의 초대 학장인 창슈홍(常書鴻)은 "220굴의 벽화는 구도나 채색에 있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교회 장식 회화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220굴의 남벽에 그려진 〈서방정토변상도〉는 막고굴에서 가장 초기, 가장 큰 규모, 가장 높은 예술 수준을 가진 통벽의 변상도이다. 이 〈서방정토변상도〉는 직사각형으로 높이 3.45m, 길이 5.40m, 총 면적 18.63㎡의 크기이다. 전체 화면의 구성은 크게 3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상단은 하늘, 타방불의 하강을 주된 모티프로 표현하고 있으며, 중단은 수국(水國), 아미타불 설법장면을 중심으로 하단은 지상으로 주악(奏樂)을 배치했다.

대담하고 장쾌한 파노라마적 공간에 펼쳐진 제220굴 〈서방정토변상도〉의 중심 주제는 중단에 그려져 있는 칠보연지 월대 누각 앞의 서방삼성 설법회이다. 연못 위에 솟아오른 화려한 연화대좌 위에 가부좌한 설법인의 아미타불과 그 좌우의 협시보살입상이 자리 잡고 있다.

아미타불 양옆에는 대세지와 관세음보살이 연화좌에 앉아 있는데, 머리 위에는 화개가 있으며 그 옆에는 연꽃을 딛고 서 있는 보살이 있다. 협시보살 주변에는 앉거나 시립하고 있는 보살이 즐비하다. 그림 전체에는 크고 작은 35그룹의 보살군이 있는데 모두 150여 명이다. 대칭 균형의 미적 원칙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전체 화면에 배치하고 있다. 이는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잡상관(雜想觀)' 내용에 근거해 충실하게 재현했다. 또한 보살좌상 1구씩은 다른 보살들보다 확연하게 큰 크기로 묘사했는데, 이미 남향당상 석굴의 부조에서도 삼존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보살입상을 협시로 둔 예는 맥적산 석굴의 불비상에서도 등장하고 있어서 이는 라호르 박물관 설법부조 계통의 영향으로 둔황 제220굴에서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마라바티의 설법부조나 양대(梁代) 불비상 등에서 설법을 듣는 보살들이 거의 대등하게 묘사되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① 둔황 제220굴 남벽 〈서방정토변상도〉 전체 모습. 초당시기에 조성됐다.

초당 시기 조성 둔황 제220굴 벽화
'관무량수경' 내용을 도상으로 재현
불국 극락정토 모습 생생히 그려내
불교 사상 전파 · 대중화 중요 형식

화면 상단에는 아미타설법 장면 뒤에 위치한 두 그루의 보수를 중심으로 좌우에는 전각과 보탑 등이 펼쳐져 있으며, 그 사이사이로 구름을 탄 화신불이 협시보살과 함께 묘사됐다. 상부는 서방정토의 하늘로 푸른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누각은 구름 위에, 안개는 보당(寶幢)을 감싸고 비천이 날며 꽃향기 가득, 천락(天樂)이 표표히 날고, 자명고가 울리니 시방(十方)제불이 구름이나 안개를 타고 법회를 들으러 오고 있다. 하늘 전체가 상서로운 구름, 향기로운 꽃, 천락보각, 불보살로 가득 차 있다. 위의 단락은 주로 서방정토 하늘의 자유롭고 즐거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장면은 〈관무량수경〉의 9관에서 〈무량수경〉의 모습을 관하는 가운데 "무량수불의 원광 속에는 백만억 나유타 항하사의 화신불이 있고, 하나하나의 화신불에게는 매우 많아 헤아릴 수 없는 화신보살들이 있어 사자가 된다"고 한 표현을 연상케 한다. 이 장면은 화면의 왕생자들을 맞이하러 오는 아미타불 도상과 함께 아잔타 제17굴 〈도리천강하〉의 화면 중단 '삼도보계강하' 장면을 계승하는 것으로, 이후 〈아미타래영도(阿彌陀來迎圖)〉 도상의 초기 예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림② 둔황 제220굴 〈서방정토변상도〉 주악 장면 부분도.

연못 위의 아미타불 설법장면 주변으로는 난간을 두르고, 뭍에서 설법을 듣는 보살들의 무리를 배치하였다. 좌우 끝단으로는 중층에 누각을 두어 전체적으로 남향당상 석굴 〈서방정토변〉 부조의 구도가 변화 계승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서방삼성은 칠보연지에 있으며, 칠보연지는 팔공덕수의 수국에 위치하는데, 이 칠보연지에는 푸른 파도가 일렁이고 녹색 연잎에 붉은 연꽃이 피어 있고, 화생 동자는 연꽃에 있거나 또는 연꽃 안에 있으며 물에 있는 연화 동자는 원앙 같은 물새와 함께 놀고 있다. 수국 주변 보지(寶池) 난간에는 공작, 앵무새, 두루미, 등의 아름다운 새들이 날개를 퍼덕이거나 목을 길게 빼고 함께 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없이 기쁨에 찬 정경이다. 중단은 주로 서방 극락정토 중 서방삼성, 구품왕생, 연화화생, 화왕생(和往生), 서방극락정토로 화생한 보살 천중(天衆)이 법문을 듣는 향락(享樂)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하단은 서방정토의 지면으로 칠보 난간의 누각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리고 유리로 장식하고 있다. 아미타 서방삼성 앞에는 거대한 노천 무대가 있는데, 양쪽에는 대형 양탄자 위에 2개 조의 악대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좌우로는 모두 16명으로 각각 거문고 · 장고 · 비파 · 고금 · 공쾌(箜篌) · 완현(阮弦) · 횡적(橫笛) · 배소(排簫) · 장구 · 동발(銅鈸) 등 각종의 악기를 연주하는 천녀를 표현하였다. 이는 북과 징의 교향악으로 이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아름다운 관현악의 연주가 들리는 듯하다. 좌우 외곽으로는 아미타불이 여러 협시보살들과 중앙으로 향해 걸어오는 듯 한 내영모티프가 묘사됐다. 중앙의 두 개의 둥근 꽃담요 위에는 한 무리의 무기(舞技)가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목에는 영락을 걸었으며 긴 치마를 입고 손에는 리본을 잡고 담요를 살포시 밟고 회전하며 사뿐사뿐 춤을 춘다. 무대 양쪽 누각 아래에는 춤과 음악을 보는 보살 천중이 있다. 하단은 주로 서방극락정토의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즐거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무악천녀들의 모티프와 연관해 〈관무량수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보배나무가 나란히 줄을 지어 있으며, 줄기와 줄기가 마주보고, 가지와 가지가 이어져 있으며 바람이 때때로 불면 다섯 가지 소리를 내니, 미묘한 궁宮, 상商의 음악소리가 저절로 조화를 이룬다. 나무는 바람이 천천히 불면 아름다운 법음을 내어 널리 시방의 모든 불국토에 울려퍼진다. 제6천의 만가지 음악도 무량수국의 일곱가지 보배 나무들이 내는 한 가지 음악에 비하면 그 훌륭함이 천억분의 일 밖에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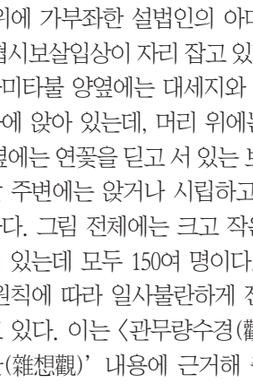
"광명대의 양쪽에는 각각 백억의 꽃송이로 이루어진 깃대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악기가 장엄하고 있다. 광명으로부터 여덟 줄기의 맑은 바람이 불어와 이 악기를 울리면 괴로움, 공, 무상, 무아의 도리를 말한다."

"여러 보배 국토에는 각각 500억 개의 보배 누각이 있으며, 그곳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신과 인간들이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또 악기들은 허공에 매달려 하늘의 보배로 된 깃대와 같으며 치지 않아도 저절로 울린다. 이 모든 소리들은 부처님과 불법, 승가를 생각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소는 당대에 유입되어 중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서역 문물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극락세계의 지극한 즐거움을 당대 사람들이 즐겼던 서역문화, 특히 쿠차의 음악과 무용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대(隨代)의 산서성 태원 우홍(虞弘)묘에서 출토된 소그드 석곽에 새겨진 연희장면이 연상된다. 이는 하늘에서부터 지상에 이르는 불국극락정토의 여러 가지 즐겁고 환희한 모습을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변상도는 실제적으로 불교 사상의 전파와 대중화의 중요한 형식이며, 불교의 각 종파가 각자의 불교사상과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채택한 예술적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토변상도의 계승과 변화는 그 출발에서 형성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토종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당대 이후의 서방정토신앙은 〈아미타변상도〉와 〈무량수경변상도〉 중에서 〈서방정토변상도〉의 고정된 패턴이 돼 600년 이상 지속됐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다산민속사주
나는 역학이다
불교계의 역/학/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승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역학비법입니다.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숫자 운명을 품다)
사주공부 어렵게 하지마라, 이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다!!!
10만 명 실관, 17년 역학 강의, 〈나는역학이다〉 대표원장 이동현의 역학통변강의

1부터 9까지 아홉 가지 숫자를 사용하여 일진, 월운, 세운, 대운을 봅니다. 대단히 쉽고 간단하면서도 족집게처럼 명확하게 사주운세를 감명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지음 | 550p | 180×253×41㎜
정가 ~~60,000원~~
판매가 54,000원(10% 할인)
◈ 책구입 & 동영상강의 신청 ◈
02)877-8771, 010-9687-0080
NAVER 나는 역학이다 검색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 1년 (서울, 경기 의식 기준)
① 사물 다루는 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② 천도의식 :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③ 각종 바라작법(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개 강 일 2022년 9월 7일(수)
교육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수 업 료 매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장 소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경주시 강동면 모서별봉길 52-33)
접수 연락처 054)762-5888 / FAX : 054)762-5889
접수기간 상시모집(전화접수가능)
자 격 종단, 승속 관계없이 가능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장 김지공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무량사
• 대표자 : 문수행 (속명 : 김창순)
• 주 소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신촌1길 163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❼ 살림과 죽임



▶한줄 요약
타인의 실패가 곧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경쟁사회는 죽임의 삶을 추구한다. 환경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살림의 가치가 흐르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죽임꾼인가 살림꾼인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다 아는 이솝우화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경주를 제안한다. 그래서 경주가 시작됐다.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토끼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잠을 잤지만 부지런한 거북이가 열심히 기어 올라가 결국 승리했다는 내용이다. 이 우화의 교훈은, 자만하지 말고, 또한 불리한 조건을 탓하지 말며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우화는 몇 가지 비판을 받는다. 잠자고 있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몰래 지나가는 그 거북이의 태도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 우화는 교과서에 나올 만큼 교육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우화를 읽는 어린이들의 마음에는 결국 '승리'에 대한 집착과 강박이 자리잡는다는 점이다. 결국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것' '1등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으로 은연중에 각인시키고 세뇌하는 우화이다. 더욱이 이러한 경쟁에서 상대가 실수를 하는 일은 잘된 일이다. 토끼가 잠을 자는 실수를 한 것은 거북이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된다. 경쟁에서 상대방의 실수, 실패는 나에게 승리이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이 깊이 각인됐다.

사실 더 솔직히 말하면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우리가 칭송하는 '거북이의 인내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실제는 '토끼의 실수' 때문이고, 그로 인해 거북이는 어부지리로 이긴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우화는 공동체의 이익, 남에 대한 배려, 사랑, 협동적인 가치와는 반대로 개인적 이익과 이해관계 속에 경쟁에서 승리하는 인간의 사적 이기심을 극대화하고 격려하는 우화인 것이다. 1960~1970년대 압축적 고도성장을 도모하던 경쟁사회 패러다임에서 자신의 열악한 조건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게 만드는 우화라는 것이다.

살림살이와 죽임살이

집에서 여성이 하는 일을 일본에서는 가사(家事)라고 한다. 영어로는 House-keeping 또는 House-hold라는 말을 쓴다. 모두 집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주부의 집안일을 '살림살이'라는 말을 쓴다. '살림'이라는 말은 '살린다'는 말의 명사형이다. 단순히 밥 짓고 빨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두를 통틀어 '살리는 일'이라고 규정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살림'의 반대는 '죽임'이다. 우리사회에서의 교육은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에서 보듯이 어린 시절부터 승부의 세계를 가르친다.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는' 교육보다 '이기는 것',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는 1등에서 꼴찌까지 서열화 됐다. 그래서 오로지 살아남는 일은 그 정점에 올라서는 일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경쟁적으로 입시를 치른다. 대학졸업 이후에는 더욱 치열한 취업경쟁이 있고 승진경쟁이 있다. 아니 더 촘촘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많은 심리적인 경쟁들이 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경쟁에서 정점에 올라서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 이기는 경험을 하는 사람보다는 지는 사람이 더 많다. 성취감을 느끼고 승리감을 느끼는 사람보다 패배의식과 좌절감, 열패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한 게임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한평생 많은 경쟁을 하게 된다.

산업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를 정당화해 온 '사회진화론'은 자연을 약육강식, 생존경쟁, 적자생존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틀렸다는 것이 최근 자연과학자들의 말이다. 실제의 자연은 경쟁이 아니라 '상호보완과 협력' '상호의존'이 더욱 절대적이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서로 짓밟고 이기려고 하지만 결국 모두가 패배하는 사회이며, 열등의식과 좌절의식을 심화 조장하는 사회이다.

경쟁사회, 죽임의 삶

우리말에 자주 쓰이는 말 중에는 기(氣)와 풍(風)이라는 말이 있다. '분위기(雰圍氣)를 살린다. 기운(氣運)을 북돋운다, 사기(士氣)를 높인다, 정기(精氣)를 세운다'라는 말로 쓰이며 특히 '기(氣)를 살린다. 기(氣)를 죽인다'는 표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자주 사용된다. 또한 학풍(學風), 교풍(校風), 가풍(家風)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한다. 기(氣)와 풍(風)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작용하는 일정한 경향적 힘과 에너지를 말한다.

타인의 실패가 기쁨되는 '경쟁'
경쟁 사회는 '죽임의 삶' 가까워
나·너 함께 사는 것은 순환의 삶
살림가치 세우는 사회 만들어야

그러나 경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패배와 피해의식, 상처는 결국 사람들의 기(氣)를 죽게 한다. 이러한 정신적인 '기(氣)죽임'이 누적되고 반복되면 살아도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심해지면 실제 물리적 죽음으로 비화된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20년 10만명 당 25.7명으로 OECD 평균 11.3명의 2배이며 회원국 중 1위이다. 우리나라는 청소년과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나라로 정평이 나있는데, 청소년의 경우도 40%가 한번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9%가 평생 한 번 이상의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여기에 우울증 환자 문제도 심각하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는 '기(氣) 죽임'의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죽임이 자연의 죽임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무한경쟁사회에서 이러한 죽임은 사람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국가도 이렇게 훈습된 이기적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곳이다. 10년 뒤의 이윤을 위해 1~2년간의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할 기업이 있을까?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이익이지만, 그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현재의 이윤을 포기할 기업은 없다. 남보다 먼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풀고, 제한을 해제하여 국립공원과 자연을 개발하고 파헤치고 선점하고 이용하는 것이야 말로 생존경쟁에서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업에게 '자연보존, 환경보존'의 구호는 회사의 공익적 이미지를 만들어 상품판매가 잘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큼으로 한정될 뿐이다.

또한 정치는 20년, 50년 뒤의 장기적인 국가 설계보다, 4~5년간의 선거와 선거기간만 책임지며, 끊임없이 개발공약만 내세우는 정치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신이 당선이 되면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을 해제해 주겠다고 하고, 거대한 시설을 유치하고, 큰 개발권을 따내겠다고 공약을 한다. 환경보전을 주장하긴 하지만, 경제성장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야 표를 더 얻고 당선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의회에는 수많은 토건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토호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인간과 인간과의 죽임이, 인간이 자연을 죽여 나가는 관계로 확장돼 환경오염, 자연파괴로 이어진 것이다. 나아가 인간끼리의 죽임과 자연을 죽이는 관계가 결국 인간 개개인을 스스로 죽이는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아니라 이러한 거대한 죽임의 순환 고리, 죽임의 문화가 약한 고리인 환경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을 지켜나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의 문화, 죽임의 사회를 살림의 가치가 흐르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불교의 '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 國土淸淨)'이 바로 그러한 가르침이다.

살림꾼은 누구인가

죽임의 가치는 주변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나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밟고 올라서는 사회를 만든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게임에 이겼다고 해도 경쟁사회의 더 많은 게임 속에 자신도 밟히는 대상이 되며 결국 그 과정에서 패배와 피해의 상처를 입고 희생하게 된다.

그러나 살림의 가치는 모든 것은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망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곧 연기(緣起)적 사고이자 인드라망적 사고이다. 그래서 결국 한 개인의 고통은 전체의 아픔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며, 이웃과 주변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손해와 피해를 자청하는 것이다. 주변과 이웃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짧게 보면 자신에게 손해로 볼지 모르지만, 먼 시간으로 볼 때 그것은 타인을 살리고 자신도 살리는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자연을 살리는 것이 곧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희생하지만 결국 그러한 희생으로 자식들과 가정을 살리고 곧 자신도 살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살림의 세계관에서 스스로 손해보고, 희생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희생이 아니고 주변을 살리며 시스템 전체를 살리며 궁극적으로 자신을 살리는 것이다. 어쩌면 가장 이타적인 것인 삶이 가장 이기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모임을 활발하게 하고 생기 넘치며 역동적으로 만드는 사람을 보라. 그는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모임에 투여하고 아마도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모임과 사람들에게 쓸 것이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욕도 많이 듣게 된다. 이렇듯 자신의 열정과 시간, 돈을 손해 보면서도 모임에 투여하고 기여하는 사람이 모임을 살리는 사람이며 모임 전체가 잘되는 것이 자신이 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살림꾼은 스스로 죽임을 자처하지만 오히려 전체를 살리면서 자신도 살린다.

내가 만지는 물건이 모두 황금이 되었던 미다스 왕처럼, 살림살이하는 살림꾼, 살림이스트는 만지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상황마다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살려내고 잘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당신은 죽임꾼인가, 살림꾼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일일시호일

19년간 공장일 전전하다
뇌출혈로 죽음 문턱

미얀마 출신 양묘나잉씨 가족 부양 위해 한국행 택해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병원비 4000만원 '막막'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뒤바뀐 소견, 단견과 상견

〈斷見〉 〈常見〉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㉗ 두 가지 멸제(滅諦)

"부사의(不思議)한 것은 고가 멸한 진실한 법(滅諦)이니, 일체중생들이 마음으로 반연할 바를 뛰어넘었으며, 일체 아라한이나 벽지불들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마치 날 때부터의 소경(生盲)은 모든 빛깔을 보지 못하며,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갓난아기가 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고가 멸한 진실한 법(苦滅諦)도 그와 같아서 일체 범부들이 마음으로 반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승(二乘)의 지혜로 헤아릴 경계도 아닙니다.

범부의 마음은 뒤바뀐 두 가지 소견이요, 일체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지혜는 범부에 비해 청정하지만 궁극의 멸제(滅諦)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변견(邊見)이란 것은, 범부들이 5수음(受陰)에 대하여 나라는 허망한 소견으로 고집하여 두 가지 소견을 내는 것을 말함이니, 곧 상견(常見)과 단견(斷見)이 그것입니다. 모든 변천하는 것(諸行)이 항상함이 없다고만 보는 것은 바로 단견이고 바른 소견이 아니며, 열반이 항상하다고 보는 것은 상견이고 바른 소견이 아니니,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으로 이와 같은 소견을 내는 것입니다."

열반에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 있는 것처럼 멸제(滅諦)에도 미완의 멸(滅)과 완전한 멸(滅)이 있다고 〈승만경〉에서는 말한다. 고(苦)가 완전히 없어진 진실한 고멸제(苦滅諦)는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지혜로도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고 했다. 눈을 뜨지 못한 갓난아기가 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범부들은 마음으로 멸제를 반연하기가 어렵다고 비유를 들어 말했다. 반연할 수 없다는 것은 생각하여 알아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른바 능소(能所)의 관계로 주객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떤 인식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유무(有無)를 판단하고 시비(是非)의 장(場)을 생각 속에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곧잘 이념적 성향에 빠져 변견(邊見)에 떨어져, 자기 생각이 우월하다는 자만에 빠진다. 여기에서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의 상반된 견해가 나온다. 단견이란 없다고 부정하는 무(無)에 집착된 소견이요, 상견은 있다고 긍정 일변도의 유(有)에 집착하는 소견이다. 중생을 깨우치기 위하여 때로는 유를 말하기도 하고 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부득이한 방편일 뿐 궁극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상(斷常) 이견(二見) 둘 다 편견(偏見)을 이루어 중도를 상실한다고 한다. 단견이나 상견에 빠지는 것을 불법 밖의 외도(外道)라 하였다. 불법(佛法)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외도란 말이다. 외도도 세 종류가 있어 불법(佛法) 밖의 외도가 있고, 불법에 기생하는 외도(附佛法外道)가 있고, 불법을 배우면서도 견해가 올바르지 못한 학불법외도(學佛法外道)가 있다 하였다.

불법의 근본 대의가 중도(中道)다. 사성제(四聖諦)나 연기법이 결국 중도의 대의를 천명한 교리이다. 유무(有無)의 견해나 일이(一異)의 견해를 다 같이 뛰어넘어 비유비무(非有非無), 비일비이(非一非異), 나아가 다시 이를 뛰어넘는 비비유비비무(非非有非非無)에 이른다. 이를 중현(重玄)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이사구절백비(離四句絶百非)'라는 말과 비슷하다 사구(四句)는 일(一), 이(異), 유(有), 무(無)를 말하는데 이 사구가 미치지 못하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일(一), 이(異)는 단원론(單元論)과 다원론(多元論)이다. 중도가 언어도단의 경지이고 깨달음이 바로 중도(中道)라는 말이다. 〈승만경〉에서 말하는 제일의제(第一義諦)의 멸(滅)이 곧 중도다.

대승불교가 일어난 배경에는 부파불교의 사변적 논리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중도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5수온(受陰)은 오온(五蘊)을 말하는 것으로 5가지 망상이 성립하여 중생이 과보받는 것을 총괄하여 수(受)라 하여 오수음(五受陰)이라 한 것이다. 때로는 오취온(五取蘊)이라고도 하는데, 중생이 이 다섯 가지를 취하여 자신의 몸으로 삼기 때문이다.

〈능엄경〉에 부처님이 아난에게 일어준다. "아난아, 이 오수음은 5가지 망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음이 망상으로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망상이 번뇌이므로 〈반야심경〉에 나오는 '오온개공'이 된 경지가 〈승만경〉의 멸성제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색신염불 후 법신염불 해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㊿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실상염불(實相念佛)

불자 여러분! '실상염불(實相念佛)'은 '제법의 진실한 자성'을 관하는 공관염불(空觀念佛) 수행입니다. 이는 색신과 법신에도 집착하지 않는 중도의 실천으로서 반야공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보살은 그의 대표적 저서인 〈대지도론〉에서 "색신에 집착하지 않고 법신에도 집착하지 않아 능히 일체법을 알아서 영원히 고요함을 허공과 같이 해야 한다. 이 보살은 상세력을 얻어 색신불이나 법신불에도 탐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법(空法)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모든 법이 허공과 같은 줄 알기 때문이다.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실상염불은 색신불과 법신불에도 탐착하지 않아서 허공과 같은 영원한 적멸에 도달하는 것이 실상염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상염불, 반야 공사상 기초로
"모든 법, 허공 같은 줄 알아야"
종밀, 사종염불(四種念佛) 강조

또한 용수보살은 〈십주비바사론〉에서 "진불(眞佛)을 염한다는 것은 색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상(相)으로써 하는 것도 아니며, 생(生)으로써 하는 것도 아니고, 성(性)으로써 하는 것도 아니다. 〈중략〉 부처님의 모든 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실히 염불하는 것이 무량하고 불가사의하다. 수행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며 아(我)와 아소(我所)가 없으며 〈중략〉 생기는 모습도 없다. 법성을 섭수하여 안색(眼色)이 허공의 도를 초월한 이와 같은 상(相)을 이름하여 진염불이라고 한다"고 실상염불이 곧 진염불(眞念佛)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용수보살은 〈조도염불삼매품 제25〉에서 "수행자는 먼저 색신불을 염하고 이어서 법신불을 염한다. 또한 신발의(新發意) 보살은 마땅히 32상 80종호로써 부처님을 염하여 점점 깊이 들어가 중세력(中勢力)을 얻고 난 후 마땅히 법신염불을 하라. 그리고 나면 마음이 점점 깊이 들어가 상세력(上勢力)을 얻는다. 그리고 난 후 마땅히 실상염불로써 탐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수보살은 염불수행을 할 때 수행자는 먼저 염하기 쉬운 색신염불부터 수행하여 염불의 힘을 얻은 후에 법신염불을 하고, 새롭게 믿음을 일으킨(新發意) 보살은 32상 80종호의 부처님의 덕상을 염하여 염불의 힘을 얻은 후에 실상염불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수보살이 강조하는 것은 수행자가 염불수행을 할 때 염하기 쉬운 색신염불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여 염의 힘을 얻은 후에 법신염불을 해야만 궁극의 목적인 실상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밀 스님의 사종염불(四種念佛)

불자 여러분! 화엄종의 제5조인 종밀 스님은 '일행삼매'나 '자성을 깨닫기 위한' 염불수행법으로써 4가지 종류의 염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밀 스님의 사종염불(四種念佛)은 부처님의 명호와 부처님의 형상, 그리고 지위에 의해 분류한 염불 수행법으로서 그 염불의 종류에 있어서는 칭명염불(稱名念佛), 관상염불(觀像念佛), 관상염불(觀想念佛), 실상염불(實相念佛) 등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㉗ 새김의 토대에 대한 경 1

"뜨거운 돌을 던져버려라"

"수행승들이여, 뭇 삶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근심을 소멸하게 하고, 바른 방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길이 있다."

어떤 사람이 손에 뜨거운 돌을 들고 와서 "이 돌을 어떻게 하면 제가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뜨거운 돌을 던져버려라"라고 말할 것이다. 듣는 자가 손에 든 것이 뜨거운 줄 알고 바로 던져버리면 더 이상 서로 할 일이 없지만, 만약 들고 있는 사람이 손에 있는 돌이 뜨거운 줄 모르면 다시 되물을 것이다. "저는 이 돌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들지 못할 만큼 뜨거운 것은 아니고, 어느 쪽은 뜨겁겠지만 어느 쪽은 뜨겁지 않아 들고 있을만하니 다른 방법을 말해주세요"라고 말이다. 이때부터 방법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뜨거운 돌을 던져버리는 일은 뜨겁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어린아이도 당장 던지지만, 그 돌이 뜨겁지 않다고 말하게 되면 방편의 말들이 아주 많아진다.

그렇다면 왜 '뜨겁지 않다'라고 아는 것일까? 뭇 삶의 의식은 전도몽상되어 사물을 바르게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지렁이나 도마뱀처럼 어느 부분을 분리하여 버릴 수 있다면, 고민 없이 잘라 버리면 되지만, 뭇 삶의 사대오온은 분리할 수 없는 몸이다. 그러니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몸과 마음으로 무엇을 찾아 헤매지만, 그러한 찾음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이지 근심과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몸, 느낌, 마음, 사실 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어떤 것에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놓치는 것이 있는가 싶지만, 어떤 것도 알아야 하는 것 없고, 어떤 것도 놓치는 것이 없다. 슬픔과 비탄은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하거나,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생겨나는 오온의 망상이지만, 뭇 삶은 그 속에서 고통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온에 일어나는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러한 느낌의 진실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사유를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차갑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겨울의 얼음과 여름의 얼음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 하나는 정말로 차갑다는 느낌이 있고, 하나는 시원하다는 느낌이 생겨난다. 똑같은 얼음이지만 느낌은 다르다. 이렇듯 느낌이라는 것이 몸의 상태 따라 다르게 일어난다면, 느낌에 대해 옳다는 견해를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느낌을 느낌으로만 알면, 따로 다른 마음을 내어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과거의 느낌에 사실이 없다면 느낌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고정된 관념이 없다면 뭇 삶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된다. 나와 나의 것과 나의 자아에 대한 강한 아상이 흩어져 어떤 한 방향이 옳고 어떤 한 방향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벗어난다.

뭇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근심은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실제처럼 느껴지는데, 반대로도 똑같이 고통과 근심이 있다면 비교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아픈 사람이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나, 잘되는 사람이나 잘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고통과 근심이 발생한다. 개체의 조건에서 고통과 근심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비교 없이 그대로 보지 못함에서 고통과 근심이 발생하였으므로, 비교만 하지 않으면 고통과 근심이 소멸하는 것을 그대로 안다.

가지고 나온 오온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구하고 찾는다고 불필요하게 헤매었네.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 때가 되면
처음 부족함 없이 왔듯이 누구나 부족함 없이 갈 뿐이니
조건 지어진 물질, 느낌, 마음 어디에도
사실이 없는 줄 알고 잊지 않기를 바라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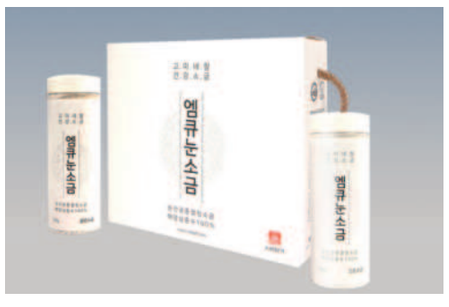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96호 | 17 | 전면광고

중생의 마음은 본디 부처이기 때문에
항상 잊지 않고 부처를 생각하면 금생과
내생에 반드시 부처를 볼 수 있으리.



부처님 말씀 읽기 -《능엄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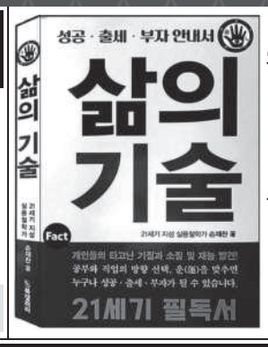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약』을 드립니다.

연세드신 스님께 약을 드립니다.
노환으로 생긴 질병, 체력이 많이 약해진 스님께 약을 드립니다.
가래, 기침으로 고생하는 스님께 약을 드립니다.

◈ 가격 : 50포 1박스 15만원 ◈

문당승 010-5454-8315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종 각
일주문 삼성각

원명 010-4300-9104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합

010-5412-8040 법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010-8721-2198

사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5세~75세, 숙식 필수
초보자, 중국교포 환영
경기도 성남
010-4253-91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70세 이하, 숙식 제공
외국인 환영
강원도 춘천 인근
010-5049-1533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347-595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대구사무실 서울잠실사무실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특수한 기도법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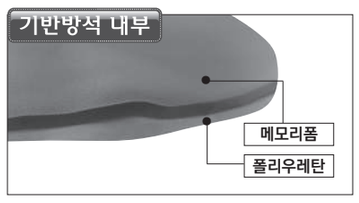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96호 | 18 | 전면광고

탐욕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 등의 악행을
짓지 않는 사람은 그 명예가 날로 더해간다.
마치 달이 보름달을 향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설선생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40억5천
◎ 위치 : 부산시포교원
◎ 입지좋은근린상가
◎ 건평 : 약100평
◎ 주차,공원,아파트
◎ 매가 : 12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마산 창원 사찰 매매입니다.
- 부지 총면적 : 2,231㎡(674평)
- 건물 총면적 : 229.12㎡(84평)
- 가액 : 25억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노스님 몸아픈 관계로)
-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급매(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 300평(종교부지) 농지 : 114평(논)
- 목조법당 : 25평 요 사 채 : 2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010-4835-17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들길87-5
- 대지 : 200평, 구건물 2동
- 임법당 20평, 방 3개
- 가액 : 9천5백만원

010-7795-9856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쌍정길99-8 불국정사
- 대지 : 206평, 건물 : 전통사찰형태2층콘크리트건물, 1층:방4,주방,욕실(40평) 2층:법당(30평), 산신각(5평) 정원:5층석탑,스님 건강상급매
- 가액 : 3억5천

010-2611-65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바닷가 근교
- 부지 : 510평(대지 220평, 전 29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 토지 : (전)신축 가능
- 가액 : 2억 5천

010-3871-22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연초면
- 대지136평
- 법당3채, 요사채1동, 화장실2, 정원처럼 잔디밭 조성
- 가액 : 3억 (절충가능)

010-4509-4061

절터로 좋은땅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 정남향에 위치, 630평
- 가액 : 평당 1백 20만원

010-9093-8324
010-9052-5736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로 166(보문산 입구 5거리) ● 2층 43평, 시설금 6백만, 보증금 3백만 (합 9백만), 월세 40만 ● 법당, 요사채 (2), 공양간 ● 시설완비(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전반시설및증설, 관벨설치완비, 도배, 장판, 음향시설) ● 5년전 인수금보다 6백만 절상(건강문제로 급매한것임)

보문산 지장사 무진 합장
010-3049-581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남이면
- 대지 : 951평 (종교부지) 300평(법당뒤 임야)
- 건물 : 법당22평, 요사38평, 지장전40평(2/2층) 창고40평(1/2층, 임대중)
- 신도다수, 시내근접
- 가액 : 13억 (절충가능)

010-3420-974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상가
- 4층 60평, 법당, 주방, 방2, 주차장 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내방후 절충가능 약 5백만원

010-7109-4661

임법당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 326평, 현대식 주택건물, 본채 40평, 별채40평, 큰창고 2개, 방5, 욕실3, 화장실4, 산신각, 지장전
- 가액 : 4억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08-0377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구성면
- 용호리 835번지 임야 약 130평
- 용호리 836번지 전 약 300평
- 합 3천750만원

010-7628-999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작고 아담한 사찰
- 건평 : 약 50평
- 건물 3동, 대웅전, 방3개, 스님큰방, 용왕당, 산신당
- 스님 몸이 건강 안좋음
- 가액 : 7천 5백(조정가능)

주지 010-7506-8604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314쪽 | 12,6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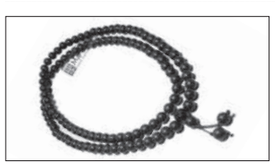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⑬ 차를 우리기 전에 할 일

茶 우리기 전, 심신부터 정갈하게

세진, 탄정, 소성, 법도, 양성

세진은 기초 차식에서 차를 우리기 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정갈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세진은 차를 우리기 위한 몸의 준비를 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번뇌를 털어내고 마음을 바로 하여 차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세진의 과정을 거치기 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먼지처럼 붕 떠 있고, 마음은 세상의 티끌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다. 세진을 통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면 마음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한 조각 구름과 같이 자유로운 경지에 들게 된다. 이처럼 세진은 마음을 한곳에 모으고 정신상태를 평화롭게 만들어 다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세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제때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기분까지 불쾌해지기 마련이다.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는 영혼의 집 역시 마찬가지여서 제때 닦아 주지 않아 먼지가 쌓이면 어느 새 빛을 잃고 점점 어두침침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다. 세상의 먼지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먼지는 인간의 탐진치 욕망과 잡념이 뒤엉켜 만들어내는 것이라 눈에 보이지 않으며 때로는 남을 해롭게 하며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먼지가 된다. 마음속 삼독의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명철한 혜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를 우리는 행다 이전에 자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명상이 꼭 필요하다.



약차를 만들고 있는 선엽 스님.

세진, 정갈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탄정, 솔직하고 진실하게 손님 대하는 것

차를 마신다는 것은 세상 최고의 복과 덕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도를 수련한다는 것은 정성껏 우려내는 한 잔의 차를 통해 나도 모르게 더렵혀진 마음방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 특히 두 손을 깨끗이 닦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먼지를 씻어내고 차계로 들어서는 지점이다. 사찰 주련에도 이런 글이 있다. 이 문에 들어 올 때 모든 알음알이를 내리고 들어와야 한다. 빈 그릇만이 대도 큰 지혜를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일이 바로 세진이다.

안진경(709~784) 등이 지은 오언 월야철차련구에 "흐르는 물은 살과 뼈를 깨끗이 하고 트인 물결은 마음의 근원을 씻도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차를 마셔 마음의 티끌을 씻어내고 맑게 만들어 마음 본연의 상태를 되찾게 되는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차를 마심으로써 탁한 몸과 마음을 씻어 본연의 맑으면서 모나지 않고 자애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차를 마시면 탐진치 삼독인 번뇌, 경솔함, 탐욕 등의 삿된 마음을 떨쳐낼 수 있으며,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일이 첫 번째 세진의 단계이다.

탄정

기초 차식의 제2식은 차 자리를 펼치고 사용할 기물을 올려놓는 동작을 통해 솔직하고 진실하게 손님을 대하는 자세이다. 차를 우리기에 앞서 차 자리와 더불어 사용할 다기와 기물을 펼칠 때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지런히 하고 반듯하게 올려놓아야 한다. 다구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탄정은 단순히 자리를 펼치고 다도의 도구를 올려놓는 것 외에도 마음 깊은 곳의 진실함과 자연스러움, 편안함 등의 심리 상태도 포함하고 있다. 한자로 탄은 광할한 대지를 의미하는 토변에 태양을 의미하는 날 일자와 지평선을 의미하는 한일 자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즉 '탄'이라는 글자는 붉고 둥근 태양이 지평선 위로 서서히 떠올라 눈부신 빛을 뿌리며 사람들에게 무한한 희망을 주는 것 같은 아름답고 장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탄정은 차를 우리는 사람이 기물과 접촉하고 소통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동시에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 손님과 교류 및 소통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차 도구를 감상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본다.〈계속〉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⑬ 생명의 기원 바다

인체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소금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바다를 그 탄생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것들이 지구화학적인 반응을 거쳐서 세포가 되고,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었고, 그것들이 진화와 분화를 거듭한 결과로 오늘날의 동물과 식물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에는 그 탄생 기원인 '바다'가 그대로 들어 있다.

인간의 경우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 후 세포분열을 거듭하여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과정을 정밀 추적해 보면 인류의 진화과정인 수억 년의 역사가 모두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원생동물, 어류, 파충류 등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겪어가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 변화해왔다. 태아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엄마의 뱃속에서 성장하는 태아의 성장 과정을 보면 과거 바다 속 단세포에서 고등생물로 진화하는 수억 년 진화의 역사를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짧은 시간에 압축해 그대로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그 구성 성분 또한 바닷물의 구성 성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인체를 원소로 분해해 보면 바닷물의 성분과 다를 것이 거의 없다. 특정 성분 한두 가지의 양에서 차이가 날 뿐 거의 같다. 원시 생물로 가면 그 차이를 거의 발견하기가 어렵다.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을 생각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창조론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있다. 그 흙의 성분은 무엇일까? 그 흙의 성분과 바닷물의 성분은 무엇이 다를까?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정 미네랄, 예를 들면 철, 금, 은 같은 특정 성분이 중심인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면 다르겠지만 보통의 흔한 흙으로 만들었다면 그 흙의 성분은 바닷물 성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 흙 속의 미네랄 성분이 수천 수억 년의 세월 동안 물에 녹아 흘러 들어간 것이 바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흙의 모든 물질인 미네랄이 녹아 있는 것이 바로 바다다. 그 성분이 인간을 구성하는 핵심 원자재가 되었다.

결국, 바닷물 속의 소금이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라는 것이 된다. 바다 속의 물과 미네랄이라는 원자재가 인간을 구성하면서 어떤 것은 뼈가 되고, 어떤 것은 살이 되고, 어떤 것은 피가 되고, 어떤 것은 체액이 되고, 어떤 것은 효소 혹은 호르몬이 되었다. 즉 인체는 물과 미네랄 그리고 식물에서 얻은 영양분이 모여 구성되어 있다.

식물에서 얻거나 동물을 섭취해서 얻게 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물과 미네랄이다. 그 미네랄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고 물을 물답게 만들어 주는 것도 소금이다.

사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은 공기와 물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들 영양물질 또한 미네랄의 작용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생명체를 분해해 보면 공기와 물과 이산화탄소와 미네랄로 구성이 된다. 여기서 물 역시 H2O, 이산화탄소는 CO2 결국 모든 생명체는 공기와 미네랄이 만들어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인체 구성성분과 바닷물 구성성분의 비교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인체	H	O	C	N	Ca	P	S	Na	K	Cl	Mg
바닷물	H	O	Cl	Na	Mg	S	K	Ca	C	N	
지구표층	O	S	H	Al	Na	Ca	Fe	Mg	K	Ti	

해수, 혈장, 조직간액, 양수, 조직내액, 세포내액의 전해질 비교 (단위 : mEq/L)

구 분	Na^+	K^+	Ca^{2+}	Mg^{2+}	Cl^-	HCO_3^-	HPO_4^{2-}
해수(海水)	456	9.7	10	55.6	536	–	–
혈장(血漿)	142	5	5	3	103	27	2
조직간액(組織間液)	138	5	5	3	108	27	2
양수(羊水)	127	4	4	1.4	106	–	–
세포내액(細胞內液)	14	157	0	26	0	10	110

출처 : 염의 과학 170P

왼쪽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혈액, 체액, 양수, 세포내액 등 인간의 모든 체액에는 소금(소금+미네랄)이 들어 있다. 순수한 물 H2O는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몸의 액체는 소금물로써 존재한다.

인간 비롯한 모든 동물 바다가 탄생기원

바닷물속의 소금이 인간 구성 기본 재료

위 표의 체액 구성 성분을 보면 소금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 소금에 포함된 미네랄인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염소 등 수십 가지의 미네랄이 인체 각 부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미네랄의 작용이 바로 생명 활동 자체인 것이다. 그리고 그 미네랄은 바닷물을 그대로 살려 만든 미네랄 소금에 그대로 들어 있다.

〈(주)오씨아드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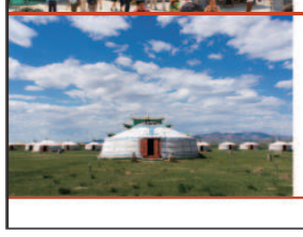
22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함께하니좋다



단체 및 개인 상담문의 02-365-7747


라오스 6일
#핵심코스로 즐기는
#라오스의 과거와 미래


방콕/파타야 5일/6일
#화려한 랜드마크
#천혜의 자연환경


몽골/바이칼 8일
#드넓은 푸른 초원
#시베리아의 푸른 눈


캄보디아 5일
#세계문화유산
#천년의 신비


인도 9일
#상상보다 더 놀라운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8일
#신성한 유적지
#반짝이는 인도양의 나라


하와이 7일
#황금빛 태양 아래
#편안한 휴식


터키 9일
#동서양의 교착지
#찬란한 역사의 땅


이탈리아 9일
#유구한 문화유산
#반짝이는 지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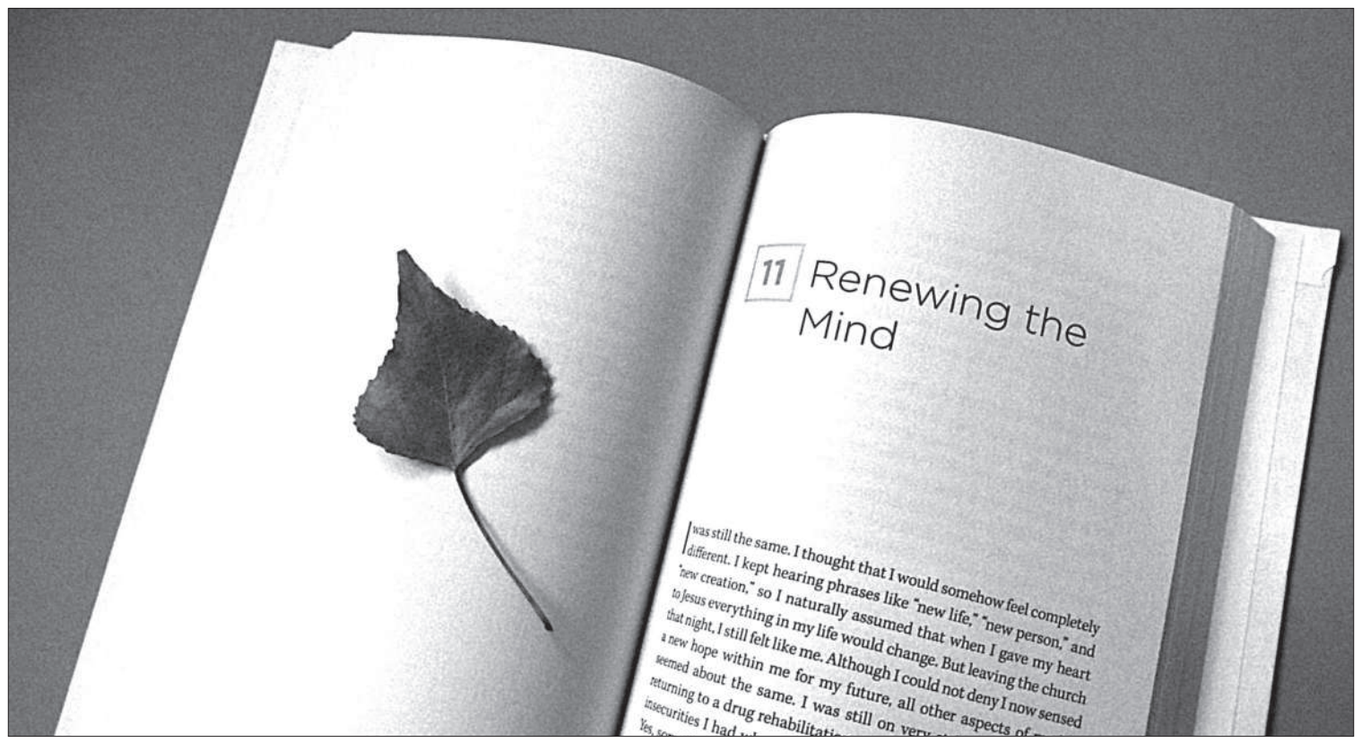
마음책 다시 읽기

분노를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

❹ 마지막 승리, 가장 은밀한 적

▶ 한줄 요약
가장 무서운 적 '죽음', 극복하면 자유 찾아온다.

죽음, 자유와 깨달음의 방편



죽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이다. 물질주의 사회의 구성원에게는 물리적 육체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우리는 죽음을 육체의 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의미를 말살하는 적으로 여긴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고 굳게 믿는다. 의미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고려하면 죽음은 마지막 명성에 대한 희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로 환원하는 적이다.

불교는 생사를 이런 환원주의적 시각에서 보지 않는다. 삶을 죽음이라는 적이 항상 이기는 승산 없는 싸움으로 규정하지 않고, 삶과 죽음을 신성하게 서로 연결된 분리할 수 없는 과정으로 본다(상반되는 음과 양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라). 우리가 허락한다면 필연적인 죽음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인간으로 귀하게 태어난 것에 깊이 감사하게 해 주고 언젠가는 죽게 될 이 세상의 모든 형제자매와 우리를 연민을 통해 연결시킨다.

많은 영적 전통이 이러한 시각을 고수한다. 죽음은 우리의 존재를 소멸시킨다기보다는 삶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무서운 그 적이 친한 친구로, 제 그림자만큼이나 가까운 친구로 바뀔 수 있다.

중국의 현자인 장자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조건을 은유한다. 그 남자는 제 그림자가 너무 두렵고 자신의 발자국이 너무 싫어서 그 둘을 떨쳐 내기로 결심했다. 겁에 질린 이 남자가 궁리해 낸 방법은 그림자로부터 달아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당연히 그림자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를 따라왔다. 그 남자는 자기가 천천히 달려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리고 속도를 높여 쉬지 않고 빨리, 더 빨리 달리다가 결국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냥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그림자가 즉시 사라진다는 것을, 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머물면 발자국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 가련한 남자는 깨닫지 못했다.

죽음을 수용하는 것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무상(impermanence)의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에 비례해서 공포가 줄어든다. 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머물면,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매 순간 균형을 유지하면 협오스러운 발자국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필멸을 의식하므로 더 많이 배려하고 감사하며 산다. 그러면 이 자각은 마음속에 자애가 솟아날 길을 열어 준다. 삶의 모든 순간을 충분히 경험할 때, 그 순간이 일어날 때부터 사라질 때까지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나기 위해, 즉 깨어나기 위해 매 순간 '죽는 것'을 배운다. 죽음은 결코 적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를 깨우치는 훌륭한 방편이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행을 해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죽음이 실제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수행을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수행은 어렵다. 우리는 자신이 죽으리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마음이 소멸한다는 생각을 철저히 차단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리라는 진리에도 저항한다. 키사 고타마(Kisa Gotami)의 유명한 이야기는 이 저항과 우리가 그 진리를 어디까지 부인하는지 잘 보여 준다. 부유한 남자의 아내인 고타미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말았다. 극한의 슬픔에 빠진 그녀에게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갈 이유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여인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다. 고타미는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되살릴 방법을 찾았다. 사람들은 고타미가 슬픔이 지나쳐서 결국 정신을 놓았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고타미는 부처님을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이에 부처님은 겨자씨 한 알을 구해 오면 아들을 살려 주겠다고 말했다. 단,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얻은 겨자씨여야 했다.

고타미는 겨자씨를 구하러 집집마다 찾아갔다. 하지만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어느 집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고타미는 마침내 알게 되었다. 진리를 깨친 그녀는 부처님에게 돌아갔다. 부처님은 고타미를 위로하고 무상에 대해 가르쳤다. 이 가르침을 통해 고타미는 무지에서 깨어났고 영적 깨달음의 첫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제야 죽은 아들을 땅에 묻을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으로 고타미에게 그 중요한 진리를 가르친 것은 잔인한 듯도 하다. 하지만 겨자씨를 구해 오라는 부처님의 말을 통해 고타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진리가 자신을 깨우쳐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신은 여전히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은 죽었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삶을 그렇게 지속시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상실로 괴로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갖는 것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었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말살
삶의 의미 측면서는 큰 적
자유에 대한 새로운 도전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바꾸고 질병과 노화와 죽음과 싸우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려고 애씀으로써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꾼다. 죽음을 향한 분노에서 주의를 거두고 자비로운 행위에 열중하는 것을 배우는 수행은 그리 쉽지 않다. 한 가지 시각에서만 보면 세상은 완전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 어차피 죽을 텐데 아등바등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회복 중인 알코올 의존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젠장, 나는 술을 끊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에 시간과 기운을 온통 쏟아 부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젠 몸이 병들었대요."

그렇다. 우리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다. 그 강렬한 분노를 어디에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고인이 된 친구, 릭 필즈(Rick Fields)는 제 분노를 시 쓰기에 일부 쏟아 넣었다. 그중 한 편의 제목이 〈암, 엿 먹어라 Fuck You, Cancer〉다. 20) 릭이 전통 의학과 대체 의학을 이용

해 오랫동안 투병했던 폐암이 결국 재발했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분노를 실제보다 줄여서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 덕분에 그는 대단히 품위 있게 임종을 맞았다. 릭은 그 자신의 죽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은 우리 문화에서 죽음은 일종의 배신이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이었다. 그런 죽음의 거부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한다는 생각과 엮여 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육신을 얼마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로 인해 우리는 뭔가 이질적인 것, 뭔가 잘못된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릭은 죽음에 저항하고 대항했다. 하지만 죽어 가는 제 육신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릇된 믿음에 빠지거나 증오의 덫에 걸리지는 않았다.

우리는 공격성이 결코 적합해 보이지 않는 영역에 그 특성을 도입한다. 삼십여 년 전, 통상적인 암 치료의 부가적 치료법으로 시각화 기법이 인기를 끌었다. 그때 환자들은 자신의 암세포를 이질적인 침입자로, 자신의 면역계는 그 암세포를 살육하는 갑옷 입은 기사로 상상해야 했다. 비디오게임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 기사는 입을 쩍쩍 벌리고 적군 세포를 잡아먹는 팩맨(Pac-Man) 같은 인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이미지가 일부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는 그걸 못 하겠어요. 제게는 그렇게 호전적이지 않은 기법이 필요해요." 그들은 자신의 병든 육신을 전쟁터로 상상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 이미지 대신에 통합의 이미지를 이용하기로 했다.

암세포를 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살기 위해 애쓰는 세포로, 단지 너무 빨리 너무 공격적으로 너무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세포라고 보았다. 암을 치유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 즉 기쁨과 평온은 물론이고 혼란과 분노와 공포까지도 하나로 통합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비디오게임 속에서 싸운다고 상상할 때보다 삶을 더욱 평화롭게 대할 수 있었다.

암 환자들은 자신의 생명력이 암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했다는 관점을 유지해야 했다. 암은 환자들의 생명력에 대한 표현이었다. 이 방법을 통해 그들은 암을 밖에서 쳐들어온 적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 인도하고 통제하지 못한 자신의 일부로 여길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약하거나 자멸적인 태도, 즉 체념이나 수동성에 대한 핑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질병을 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전사 유형(warriors model)에 적용하는 그 어떤 관점보다 실제로 더 많은 힘을 주었다. 우리는 힘이 원래 공격적이라는 생각을 너무 당연시한다. 때문에 사랑과 친절과 연민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정반대로 바꿔야 한다.

분노와 품위를 가르는 날카로운 경계 위에서 균형을 잡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의 손을 비틀어 통제력을 빼앗음으로써 죽음은 우리를 훌륭하게 해방시킨다. 최근에 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전 두 주 동안 그 곁에서 함께 머물렀다. 병원 침대가 집으로 옮겨져 식당에 놓였고, 친구는 거기에 누워서 지냈다. 문이 정원으로 열려 있어서 친구의 생명이 서서히 잦아드는 동안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렸다. 친구는 의식이 오락가락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다소 동요하며 내게 고개를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 물건을 전부 길 건너편으로 옮겨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물었다.

"복잡해!" 친구가 말했다.

나는 친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한 시간이 흘렀다. 그제야 나는 '길 건너편' 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것 같았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자기 물건, 다시 말해서 물질적 소유물이나 정서적 짐, 오래된 믿음, 습관적이고 충동적인 반응 들을 힘겹게 끌고 다닌다. 죽음의 길을 건널 때도 우리는 내려놓으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실제로 남김없이 내려놓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저자 : 샤론 샐즈버그, 로버트 서먼 〈담앤북스 펴냄〉





대행 스님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서로 공생 공용을 하면서 공체로서 공식화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반면에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천차만별로 개개인이 있습니다. 차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 오늘의 이 자리를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인간이라 하면 '우리이 자체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과 마음으로써 내 마음과 몸을 다스리면서 모든 일을 꾸려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입산을 했든 입산을 안 했든 이 공부하는 데는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면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온 고장을 모르기 때문에 갈 고장도 모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하라. 영원한 근본, 자기 뿌리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겨 놔라." 이렇게 해도 '뿌리가 뭐 말라빠져 죽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나 봅니다. 어떤 분들은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도 과감히 놓고 가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7, 8년이 돼도 놓고 가지 못합니다. 이건 무슨 까닭일까요? 자기 마음으로써 자기를 다스리고 행을 하면서 그 행하는 자체가 바로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를 알고 모든 거를 놓을 수 있다면 될 텐데, 그거를 모르고 항상 방황하고 관습을 좇아서 '이거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고 끄달리고 가니 어떻게 걸림 없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나를 발견했다면 상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상대를 발견했다면 세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나오고부터 벌어진 일들인데도 나로부터 찾지 않고, 나로부터 생각해서 다스릴 줄 모르고, 나한테 닥치는 용도대로 모든 것을 그 자리에다 다시 입력을 해서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게 할 줄 모르고 이런다면 일일이 닥치는 것을 독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 없느니라." 하신 뜻도 거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내가 수 해를 두고 수십 년을 두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그 뜻을 모른다면 항상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세생생에 그 굴레에서,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옷을 바꿔 입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한 대로 옷을 입고 나오니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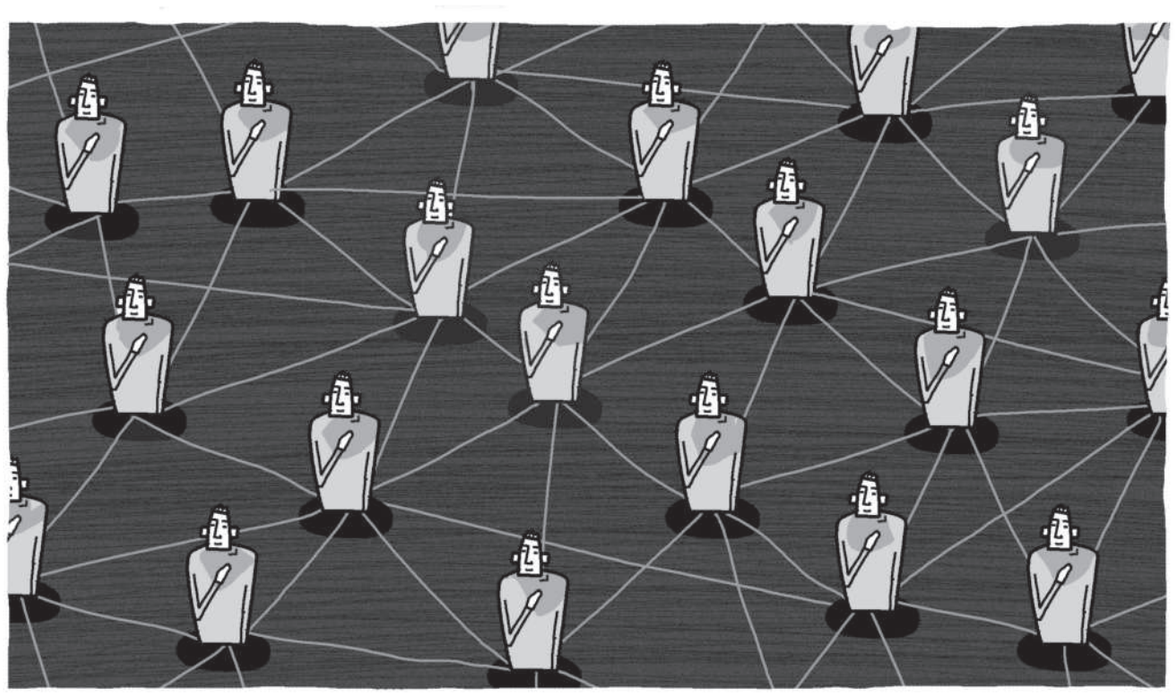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 생활 속에서 살면서 벌어지는 일이니 옛날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혼자 외로이 살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길렀더랍니다. 말할 데가 없으니까 고양이한테 항상 말을 걸면서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잘하는 짓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다.' 하면 그 말을 듣는 것처럼 눈을 똥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랍니다. 수 해를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고양이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알아듣더랍니다. 그대로 알아들어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주인을 따라서 너 나가 둘이 아니게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친척이 재산 때문에 그 사람을 살해하고 재산을 송두리째 다 갖게 됐더랍니다. 그런데 살해해서 갖다가 버린 그 자리에 항상 고양이가 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더랍니다. 자기는 사실을 알려 주는 거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야옹 야옹" 하고 고양이 우는 소리로밖에는 듣지 못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탐정이 그래도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는 그 요량을 알았던지 그 고양이의 심상치 않은 태도를 보고 거기를 파 봤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시체가 나오고, 그래서 그 재산이 고양이 앞으로 다 갔더랍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있겠습니까? 자기 주인이 죽었던 자리에 가서 그대로 몸을 벗었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얘기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고양이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개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돼지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산 대로 말입니다. 그러니 옛날 얘기라고만 하겠습니까? 그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을 했지만, 더기가 막힌 것은 사람의 의식이 남아 있는 데다가 고양이의 모습을, 옷을 입고 나온다거나 개 모습을 하고 나온다거나 돼지 모습, 소 모습, 토끼 모습, 곤충의 모습, 저 나무의 모습 등 가지가지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이겠습니까? 상대방들은 모두 옷 입은 대로 대접을 해 줄 겁니다. 독사 소굴에 들어가서 독사가 되었다면 독사의 대접을 해 줄 수밖에는 없죠.

그러한 고로 여러분이 지금 사실 때에 어떻게 살아야만이 잘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만이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중용을 할 수 있으며, 중용을 하는 데도 걸림 없이, 어떠한 거를 본다 듣는다 해도 구김살이 없이 자유스럽게 무명을 벗겨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가 무명을 벗은 고로 어떠한 곤충에 이르기까지라도 보고 들으면 무명이 벗겨질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를 알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칠석(七夕)이다' 이럽니다. 칠석날! 일체 만물만생이 둘이 아닌 고로 종합적으로 여래라고 하는 거와 같이, 칠석이라는 이름은 종합된 이름입니다, 칠석! 그러면 또 칠성은 무엇인가? 그거는 개개인들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뗄래야 뗄 수 없듯이, 성 자체가 뗄레야 뗄 수 없는 성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칠성은 개개인의 성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과 성을 종합해서 칠성이라고 이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북두칠성도, 어떠한 별성도 이 우주 천체가 우리 마음에 직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하는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끔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유스럽게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유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칠석날 촛불을 켠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의 밝음을 그대로 연결해서 내가 밝아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석날은 산 사람이 촛불을 밝히듯이 내 마음을 밝혀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싹이 났는데 그 싹은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칠석날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자기 뿌리와 더불어 마음을 밝혀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뿌리와 자기 싹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스님네들은 스님네들대로 물을 촉촉히 주면서 '마음을 밝혀서 네 뿌리를 보아야 된다. 네 뿌리가 일체 살림을 하고 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백종(百種)은 왜 생긴 건 줄 아십니까? 백종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백종입니다. 씨가 아직 땅속에 들어가지 않은 관계상 여러 신도님들은 부모를 위해서나 자기를 위해서나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씨는 다 마찬가집니다. 싹은 났으되 그 자기의 씨를 모르니까 말입니다. 살아 있을 때에 그 씨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싹으로 그냥 있는 줄 알고 허공중에 헤매는 조상들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도님들이 밭을 갈고 흙을 고르고 물을 촉촉하게 해 놓으면 스님네들은 씨를 심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씨가 바로 싹이 되고 할 때에,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천도재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염불만 해서 천도가 되는 게 아니고 씨가 심어지는 게 아닙니다. 씨를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죠. 또 씨를 심었다 하더라도 자기 씨에서 싹이 났다는 거를 그 조상의 영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님네들의 소임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은 이 세상에 태

☞ 22면으로 계속

마음이 향기를 내는 책, **법보시 주문**은 02)732-1520 으로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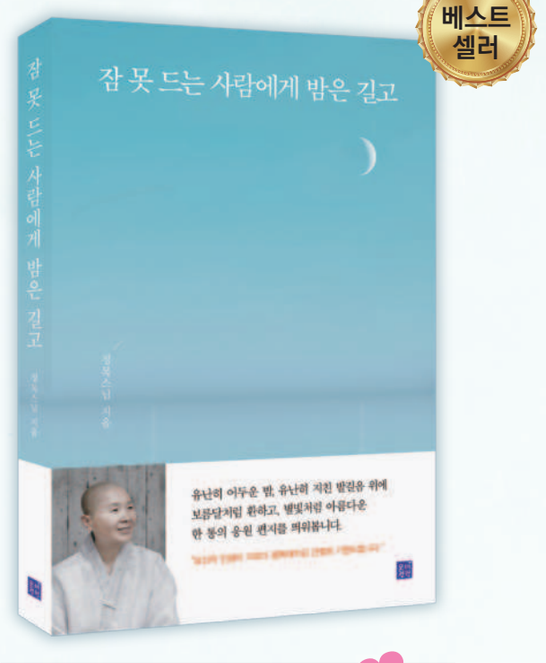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12,600원** (배송비 별도)

모네의 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못 쓰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이다

☞ 21면에서 계속

어나도 은연중에 자기 뿌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손들이 그렇게 해 놓으면 스스로 자기 마음의 뿌리도 알게 될 것이며 조상들도 마찬가지여서 양면이 다 알게 됨으로써, 즉 말하자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냥 절에 와서 촛불이나 켜고 향이나 피우고 물이나 떠 놓고 꽃공양이나 하고 '난 절에 갔다 왔어.', '나는 불교를 믿어.'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걸 알고, 자기로 인해서 공용을 하고 돌아간다는 거를 알아야만이 바로 불교를 아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불(佛)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를 막론해 놓고 다 생명 없는 것이 없으므로 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말과 말로 전달해서 돌아가게 했고 천차만별 생명들의 모습들이 다 그 나름대로 전달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면 미국말 하고 일본 사람이면 일본말 하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 하듯 다 자기네들끼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말을 하고 전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출한 거는 뭐냐. 말 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하는 도리입니다. 이게 정신계의, 바로 중용의 진리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돌아가는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나 과학자나 천체물리학자가 자기 소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걸림 없이 타개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는 일체 우주 삼천대천세계 모두가 가깝고 멀고가 없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만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학술 이론 등 지금의 지식이나 의학계의 모든 거를 동원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100%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온 줄을 알아야 그 병도 어디서 온 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계의 50%를 충당할 수 있고, 거기에 물질로써 커버하고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의료상의 50%가 종합돼야 우리가 100%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그렇고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도 다 그러합니다. 기계 하나를 만들어 놔도 그 사람의 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장승을 하나 세워 놔도 장승 세워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혼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고 오면서 보고 생각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거기 투입이 돼서 다 신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조성을 해서 저렇게 모셔 놓으면 그 모습만 봐도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마음을 거기다 다하기 때문에 여래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다면 부처님도 안 계신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 내는 것이 없다면 목석이 될 것이고, 체가 없다면 무효일 것이고, 정신계의 근본이 없다면 바로 또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아주 높은 데고 낮은 데고 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에게 '주인공에 관하라' 하니까 자기 빼놓고 주인공이 개별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공이 있다' 하니까 '주인공에다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준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관해야지 '당신이 좀 해 주시오.' 하면 그것도 기복이지요. 생각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인공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 **칠석날 촛불을 켠다 이런 것은**
> **우리가 마음의 밝음을 그대로 연결해서 내가 밝아짐을 말합니다.**
> **산 사람이 촛불을 밝히듯이**
> **내 마음을 밝혀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한 가정을 한데 합쳐서 이끌어 가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듯이, 내 몸속에 있는 일체 생명들과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도 너무 많으니 공생이지 그게 개별적인 자기 생명 하나입니까? 그래서 공생입니다. 내 내면의 세계에, 내 육체세계에 생명이 많이 들어 있는 것만 봐도 공생인데, 나로 인해서 또 혼자 살 수 없는 도리가 외부에 모두 있다 이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듯이, 회장이 있어야 사장이 있고 사장이 있어야 직원이 있듯이 이거는 양면의 한쪽만 없어도 무효입니다. 아니 됩니다. 작용이 될 수가 없죠. 그럼으로써 혼자 먹는 것도 없고 혼자 버는 것도 없고 혼자 쓰는 것도 없고 혼자 하는 것도 없고, 모두가 혼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기를, 공생 공용 공체 공심! 그러니까 주인공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면에, 육체 속에 있는 그 많은 생명들이 저 좋은 대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그 직원들이 바로 자기인 것입니다. 자기 수효가 그렇게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 먹는 것도 없습니다. 혼자 보는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결부됐으니까 말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간장이니 위장이니 심장이니 모든 게 한데 붙어서 정맥 동맥이 그냥 같이 돌아가는데, 혼자 사는 게 어디 있고 혼자 먹는 게 어디 있고 혼자 일하는 게 어디 있고 혼자 했다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자기 일상생활 그대로, 근본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움죽거리기 때문에 육신이 움죽거린다는 거를 알면 내면의 모든 일체가 다 내 마음에 의해서 움죽거리는 걸 아실 겁니다. 내면에서 마음의 선장이 '이렇게 하자' 하면 전부 따라 줍니다. '좋게 하자' 하면 좋게 따라 주고 '도둑질하자' 하면 도둑질하는 대로 따라 주고, 허허허, 이렇게도 따라 주고 저렇게도 따라 주는데 그거를 왜 믿지를 못하고, 왜 거기다가 맡겨 놓으라는데 진짜로 맡기질 못합니까? 모두가 자기 아닌 자기인데, 천체가 자기인데 자기 이름을 수효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포함해서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간장 공장에도 소임자가 있고 위장 공장에도 소임자가 있고, 몸속에 전부 소임을 맡아 가지고 제각기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속도 한 나라라고 친다면 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바로 마음입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습에 끌리지 말고, 못 한다 한다에 끌리지 말고 단호히 당당하게 모든 거를 믿고 맡겨 놔야죠. 아니, 죽든지 살든지 같이 죽고 같이 살아요. 당신의 영혼의 근본이 떨어지면 당신도 송장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도 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마음이 진짜 내 모든 생명의 의식들하고 통한다면 자기가 자기 죽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누구든 자기가 자기 죽이려고 나쁘게 하는 법 보셨습니까? 자기가 살 양으로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 관습에 얽매이게 하지 말고, 또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네가 한 거니까 네가 그러지 않게도 할 수 있잖아!' 하고 다시 놓는 것이 자생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말로 하자면 복잡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업식이 돼 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정자 난자에 포함돼 가지고 자기 영혼에 다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세계에서 화가 나고 미운 사람 이쁜 사람이 있고, 죽이고 싶은 심정이 들거나 화가 나서 '에이그, 죽어 버리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나, 다 그냥 흩쳐 버리고 어디로 가고 싶거나 하는 것들이 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나올 때마다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해라 이겁니다.

생명의 의식들은 바로 한 집에, 한 독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마음이 선장이 돼 가지고 잘 다스려 나가면서 제도를 해야 "아래로는 제 중생들을 제도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래로는 자생 중생 자기를 제도하면서 위로는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둘이 아닌, 자기 주인공과 둘이 아닌 도리를 항상 잊지 말 것이니" 하는 거죠. 이 모두가 습득이 돼서 잘 아신다면 참자유인이 될 겁니다.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기 뿌리를 믿는 것인데 왜 못 믿습니까. 누가 형상을 믿으랬나요, 이름을 믿으랬나요, 허공을 믿으랬나요, 어느 스님의 고깃덩어리를 믿으랬나요?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모자라든지 모자라지 않든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바로 자기 뿌리를 믿고 거기에 다 놓으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는 체가 없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체가 없는 자기 의식들이 너무 많아서, 한마음에 그 의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어느 회사에 직원들이 수천수만이라면 회장님 한 생각에 직원들이 다 움죽거리게 됩니다. 안 그럴까요? 이거 하라는데 저거 할까요? 그러니까 한 회장님으로서, 사장님으로서 의논을 하고 모두와 조화롭게 한번 결정을 해 놓는다면 모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내가 한번 과감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대로 거기에 믿고 놔야만이 결정적인 결재를 하는 겁니다.

결재를 해서 내려야 모두 작용을 해 주는 겁니다. 안에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에는 우주간 법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 즉 말하자면 모든 걸 채근해서 좋은 거는 들이고 나쁜 거는 내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대기권이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도 지구의 대기권과 같이 세포 하나하나에서 모두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다 채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결정을 내리면 결재가 된 거와 같아서, 바로 마음에서 그럭하면 두뇌로 통신이 돼 가지고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전체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고장이 났을 때는 안에서 모자라는 것은 뭐든지 다 보급을 해서 채웁니다. 호르몬도 모자란다면 채워 가면서 작용을 합니다. 또 바깥의 일들이 위태롭게 될 때는 바로 세포의 법계에서 의식들이 나가서 바로 마음과 마음 속으로 들고 남이 없이 들고 나면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일체 만법은 다 한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한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정리를 못 하고, 믿지를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것은 자기 몸뚱이가 자기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뚱이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많아서, 이름도 많고 의식도 많은데 많은 그게 하나로 뭉쳐서 한마음으로 선장이 돼 있다는 사실이며, 그 뿌리가 바로 선장과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믿지를 못하고 그렇게 허왕지왕 허왕지왕 해 가지고 업식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자꾸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막습니까.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 것을 그렇게 애탄지탄 착이 갑니까? 지금 가다가 죽으면 어떠며 지금 조금 덜 먹으면 어떠며 더 먹으면 어떠며, 더 살면 어떻고 덜 살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3년 9월 19일 국내 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행스님과의신행문답

생활속의 불법수행

주인공主人空이란 말은 그냥 이름이니 달리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길을 묻는 이들에게 건네는 차 한 잔의 법문

Q 스님께서는 거듭거듭 마음공부를 강조하시는데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A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한 철 살다 가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특별한 자격도 학식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도리인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불 논단

자기가축화 넘어야 살아남는다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브라이언 헤어 주장한 '자기가축화'
스스로 가축화해 공감, 협력이끌어
인간 공동체성, 자기가축화 결과물

이를통해 번영했으나 부작용 존재
'우리 집단' 관대 하나 반대파 배척
韓사회 팬덤서 자기가축화 나타나

자기가축화 넘기 위해 '자비' 필요
공감 등으로 만든 자비의 옷 입자

개의 세상이 된 것 같다. 주변을 보면 개와 관련된 이야기가 풍성하다. 개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대표적인 수식어로 사용된 시절이 있었다. '개만도 못한 놈' '개판 세상' . 그러나 지금은 개를 '개새끼' 라고 부르면 폭력적 인격의 소유자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생명체는 상호의존적이라는 연기론의 틀에서 보면 자연적이고 바람직하다. 논쟁거리는 좀 있지만.

필자는 자비 실천윤리에 관한 책을 쓰면서, 자료를 탐색하는 와중에 개의 세상이 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진화인류학자 브라이언 헤어(Brian Hare)는 그의 저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Survival of the Friendliest)〉에서 '자기가축화(self-domestication)' 라는 이론을 내세운다. 자기가축화의 가설에 의하면 현생 인간 호모 사피엔스는 스스로 가축화됐다는 것이다. 다정함과 친화력, 공감과 협력, 호기심과 놀이 등 인간의 특징은 인간 정신 가축화의 산물로 보고 있다. 인간의 사회성과 공동체성이 자기가축화의 결과물인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인보다 열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자가 된 것도 자기가축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개는 인간에게 스스로 가축화된 독특한 종이라는 것이다. 사실 개는 늑대와 같은 종이다. 스스로 가축화의 길을 택한 개는 번영의 길을 맞이하고 있지만, 가축화를 거부한 늑대는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인간이 지니는 잔인성과 폭력성이 가축화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자기가축화의 범주 안에 있는 구성원에게는 따뜻한 배려와 공감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집단' 외에는 열등하고 사악한 늑대 무리라고 여기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인류의 비극은 다른 집단과 종에 대한 혐오와 폭력에서 나온 것이 태반이다. 인간은 자기가축화를 통해 지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종이 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끔찍하고 해악한 존재가 되고 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지구별이 '자기가축화' 된 인간에 의해 파멸되어 가고 있고 타인을 비인간화하는 수사가 넘친다.

이렇게 자기가축화가 현생 인류를 번성케 한 큰 원인이지만 이제 이것이 지구촌에 큰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비이다. 자비는 중생의 고통과 비애에 대한 다면적인 반응에서 출발한다. 자비는 공감 · 동감 · 친절 · 용기 · 인내 · 평정 등 다양한 실로 짜인 옷감이라고 할 수 있다. 자비라는 옷의 실에는 자기가축화가 가져온 인간 덕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덕목이 오늘날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비수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비심의 방사(放射)이다. 방사는 자비심의 대상과 그 영역을 확대해 가는 것이다. 즉, 자비를 보편화하는 것이다. 친한 사람, 친한 집단, 친한 종에게 한정되는 미덕은 다른 사람, 집단, 종에게는 큰 악덕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높다.

지금 한국사회는 팬덤(Fandom)이라는 용어가 문화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의미인데 여기서도 자기가축화 현상이 지니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팬덤 현상은 생산적인 측면이 많은 문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기 민망할 정도의 미움과 혐오의 용어가 처처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다. 현생 인류를 번성케 한 자기가축화, 이제 이의 벽을 뛰어넘어야 지구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이 바로 자비의 길이다. 〈자비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감한다.

전 우주를, 그 높은 곳, 그 깊은 곳, 그 넓은 곳/ 끝까지 모두를 감싸는 사랑의 미음을 키워라./ 마음도 적의도 넘어선/ 잔잔한 그 사랑을

社 說

비구니 원력, 한국불교 난제 풀까

조계종과 선학원 간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면서 비구니 스님들의 고충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재단법인 선학원이 조계종 탈종단화 수순을 가속화하면서 선학원 소속 조계종 스님들의 이중고도 커지고 있다.

선학원은 소속 분원 조계종 스님들에게 '이중승적' 을 이유로 사실상의 탈종을 종용하고 있고, 조계종 역시 '법인법' 에 따라 미등록 분원 소속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려로서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조계종 승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단에 등록된 사찰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사찰 운영을 위한 창건주 · 분원장으로서 소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단 승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비구니회가 "더이상 비구니 스님들의 고충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 기인한다. 조계종과 선학원 간 갈등구도 속에서 불필요한 피해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해결방안을 직접 모색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수행환경 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전국비구니회의 결단과 실행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변화의 카드는 조계종과 선학원 양측에서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비구니회는 그럼에도 양측을 움직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호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선학원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비구니사찰의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 결집이 선학원 문제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MZ세대 맞는 법당 조성 힘써야

고즈넉한 산사는 어른들에게는 사유와 사색, 성찰의 장소이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좀 다르다. 일주문에 서 있는 험상궂은 사천왕상부터 오방색의 사찰 문양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낯설고 무섭다. 법당을 낯설어 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불교는 진입 장벽이 높은 어른들의 종교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들어 종립학교 법당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 방식을 재현하기보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법당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산하 학교 법당 리모델링 프로젝트' 는 동국대 부속 초 · 중 · 고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스님이 미래불자 양성을 위한 포교 공간인 산하학교 법당을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지난 4월 29일에는 은석초등학교가 7월 11일에는 동국대부속여자고등학교가 리모델링한 새로운 법당을 공개했다. 두 법당 모두 초등학생과 여고생들의 눈높이와 감성에 맞춰 새롭게 조성됐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다른 종립학교에서 견학을 올 정도라고 한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최근 유행하는 미디어 아트를 동국대부속여자중학교 법당에 도입할 예정. '상 · 상법당' 이라고 명명된 동국대부속여자중학교 법당은 기존 불상 뒤에 자리하고 있던 전통 형식의 탱화 대신 고해상도 LED 스크린을 설치해 미디어 영상작품들이 상영되도록 제작된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진 불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맞는 법당부터 조성해야 한다. 법당에서 뛰놀고, 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시작이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꾀꼬리 오름과 보문사지

섬은 돌과 바람과 물이다.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 제주는 바람과 돌은 많은데 물이 귀하다. 그러기에 물이 있는 곳에는 옛 절터가 많다. 물이 몸의 생명이라면 믿음은 마음의 생명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절에서 흐르는 물을 약수 혹은 죽지 않는 생명의 물이라 하여 감로수라고 한다.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오름이 시작되는 것구리(꾀꼬리)오름 기슭에 용수량이 제법 되는 샘이 흐르고 있는데 원물(院泉) 또는 절세미(寺泉)이라 한다. 그 이름은 보문사가 있었던 터이기에 붙여진 것이다.

보문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이원진의 〈탐라지〉에 제주목의 여러 사찰과 함께 기록돼 있다. 이곳 사지에서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의 도자기류를 비롯해 어골문 계열의 복합문 기와가 고루 확인된다. 최근까지 기단석과 정초석들도 한군데 쌓여 있었지만, 현재 모두 유실되었다. 조선 시대의 보문사는 옛 제주목과 정의현을 오가는 길에 설치되어 동원(東院) 역할을 담당했는데, 절 주변을 김상헌의 〈남사록〉에서는 보문동, 〈탐라도〉에서는 보문촌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고려 혜일 선사의 시가 전해 온다.

절은 초라하니 거친 지경에 의지했으나(寺僻依荒徼)/샘물은 달디다니 꿈속에서 얻었네(泉甘得夢中)/ 연꽃 도량이 수승한 일을 맞았으니(蓮場逢勝事)/ 불법의 유풍이 이어졌음이라(佛隴嗣遺風)/ 풀은 서리를 맞고도 그대로 푸르른데(草過霜仍綠)/ 담쟁이는 풍토병 때문인지 붉지 않구나(蘿因瘴未紅)/ 원통문이 스스로 열린 이곳에(圓通門自啓)/멀리 기러기가 넓은 하늘에서 울고 있어라(遠鴈叫長空)

혜일 선사는 고려 충렬왕 무렵인 1275년에서 1308년 사이에 제주를 노래한 최초의 인물로 시승이라 불린다. 선사는 전남 강진 백련사에서 백련결사운동을 전개한 원묘요세, 천인, 원완의 뜻을 이은 인물이다. 또한 선사는 몽고침략기 저항을 주도하였던 삼별초와 뜻을 함께하여 완도로 유배 온 이영의 숙부이기도 하다. 이때 완도 법화사를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사의 시는 전쟁의 광풍이 휩쓸고 간 탐라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 이때 원의 원종(1273)은 삼별초 항쟁을 진압한 뒤 그 잔군 토벌과 항복민을 다스리기 위해 초토사를 두어 직접 관리를 파견했다. 원은 그 이전부터 탐라를 일본과 남송의 정벌을 위한 전초기지로 여기고 있다가, 삼별초의 항쟁을 계기로 탐라를 직할령으로 삼고 초토사를 설치한 것이다. 이후 제주는 약 100년간 원의 직접적인 지배 속에 있게 되는 탐라총관부가 설치됐다.

탐라국은 동북아 전쟁이 몰아치는 전초기지였다. 혜일 선사는 그 광풍의 길목에서 작고 거친 오름 하나 기대고 있던 사찰 보문사를 노래하고 있다. 그곳은 탐라의 고단한 역사 속에서 도민들에게 달디단 생명의 샘물로 목을 축이고, 고해에 피어난 연꽃과 같이 삶에 위안이 되었던 사찰이었다. 그 시절 선사에게 저 오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 울음은 자비 관음을 염송하는 목탁 소리와 다름없었을 것이다.

〈제주 선래왓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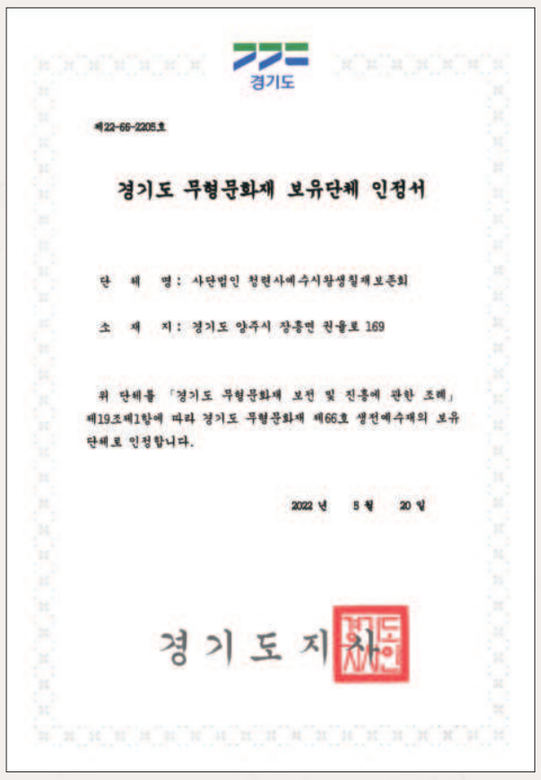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봉 ‘청련사 생전예수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축





경기도

제22-66-22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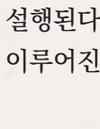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단 체 명 : 사단법인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위 단체를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 생전예수재의 보유단체로 인정합니다.

2022 년 5 월 20 일

경기도지사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사단법인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에서 매년 음력 9월 9일(중양절)에 설행하는 생전예수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불보살님의 가피로 청련사와 한국불교태고종은 물론, 우리 불교계 전체로서도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동방의 청련사는 서방의 백련사와 더불어 동서 양대 만다라 사찰로서 진호국가(鎭護國家)의 기도 터전으로 범패가 성행했음은 물론, 20세기 초부터 경제(京制: 서울·경기 범음범패 소리) 동교파에 속한 중요사찰로, 1910년 청련사로 출가한 능해 큰스님을 시작으로 덕봉 스님, 청호 스님, 춘담 스님, 벽파 스님, 백우 스님, 상진 스님으로 계승되어 생전예수재를 여법하게 봉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련사는 종단을 대표하는 본산급 사찰로서 수행, 교육, 포교, 복지에 있어 타의 귀감이 되는 사찰입니다.

청련사 생전예수재의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특히 뜻 깊은 이유는 학술적 고증을 통하여 전통의식에 따라 매년 설행된다는 점과 의식을 위한 설단, 장엄, 어산, 작법의 봉행 등이 청련사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청련사의 생전예수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련사가 한국불교 전통의식을 전승하여 더욱 빛나는 수사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기 2566(2022). 7. 20.

한국불교태고종

원로회의의장 **도 광** 총 무 원 장 **호 명**
중앙종회의장 **법 담** 호 법 원 장 **혜 일**
포 교 원 장 **법 경** 초 심 원 장 **금 담**
선암사 주지 **시 각** 봉원사 주지 **원 허**
백련사 주지 **동 허**

상진문도회 **청련사 신도회**